

발 간 사

高神大學과 基督教大學으로의 理想

우리 大學社會가 지난 1년동안 混亂과 激動을 겪었지만 이제 조용히 공부하는 大學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今年에도 教授論文集을 發刊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大學의 가장 중요한 機能은 學問研究와 社會奉仕이기 때문에 學問研究를 중단하거나 게을리할 때 大學은 質的低下를 招來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世界에서 가장 공부안하는 大學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학생들은 勉學에 힘쓰며 教授들은 社會와 教會에 寄與할 수 있도록 研究에 專念해야 할 것이다. 高神 大學은 특히 學門的 發展을 圖謀해야 하지만 聖經의 眞理에 또한 基礎해야 한다는데 우리의 중대한 使命이 있다. 高神大學은 學問의 目的이 학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效用과 實利와 教養 및 하나님의 靈光에 있다.

지금 韓國社會는 大學教育이 大衆化함으로 質的水準이 深刻한 危機에 처하여 있으며 道德的 權威가 失墜되어 大學社會가 社會의 模範이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眞理와 實踐에서 다른 一般大學에 本이 되며 나아가 社會의 良心이 되도록 새로 거듭나는 契機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經營難이 결코 어떠한 不條理나 非理를 正當化 하지 못하며 더욱 基督教 大學은 他의 摸本이 되어야 한다. 混濁한 社會, 社會의 아노미 現像이 극에 달하지만 教會와 大學만은 眞理와 良心의 最後보루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高神大學은 人文學部 보다 自然科學部가 數的으로 더 많은 實情이며 이제 시작하는 段階에서 方向設定에 苦心하고 있다. 國際化時代에 副應하여 내년부터는 外國 先進 基督教大學과 姉妹結緣을 맺어 教授交流와 學問發展을 圖謀하고자 한다. 더욱 希望과 비전을 가지고 좋은 基督教大學으로 發展하도록 教授, 職員, 學生들의 努力이 要求되는 바이다.

학장 선교학박사 전 호 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계시된 성령 사역(事役)에 관한 연구

= 사도행전 1~15장과 베드로 서신을 비교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Revealed through the Apostle, Peter : Especially Compared Acts 1 : ~ 15 : with Peter's Epistles)

이 승 미*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목 차

- I. 서 론
- II.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 사역 : 행1~15장
 - 1. 사도행전의 기록목적과 내용 분해
 - 2. 행1~15장에서의 '성령'(혹은 '영')에 대한 언급
 - 3.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사역(행1~7장)
 - 4.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성령 사역(행8 : 1~40)
 - 5. 이방인을 향한 성령 사역(행10~11, 15장)
- III.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 사역
 - 1. 수신자와 기록 목적
 - 2. '성령'(혹은 '영')에 대한 언급

* 조교수, 신약학

3. 양 서신에 나타난 성령 사역

IV. 성령 사역 내용의 비교 : 행1~15장과 베드로 서신

- 1. 양쪽에 공통으로 나타난 내용
- 2. 사도행전에서만 강조된 내용
- 3. 서신에서만 나타난 내용

V.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국내외적으로 교계 및 신학계에서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문제중 그 하나는 ‘성령론’에 관한 것이다.¹⁾ ‘성령론’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성령을 통한 역사들 중에서도, 주로 방언, 신유, 예언, 투시...등 은사들에 관한 것들, 특히 가시적인 회한한 이적적인 역사들에다 지나친 강조를 두므로 부터 야기된 것들이다. 이의 근본 문제점은, 신자들의 실생활에 가장 실용적이고 또한 현재의 삶에 바로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는 입장을 중심으로 하여, 성령을 이해하며 해석 할려고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 가장 극적이고 또한 가시적이며 이적적인 사건과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곳인 사도행전에 편중, 성령을 이해하려고 한다. 특히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서도, 그 전반부인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타난 사건과 성령의 역사들은, 사실 매우 특이한 것들이어서 그 부분 자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활동에 관한 보다 전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바른 해석과 이해, 즉 행1~15장의 관련된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는 ‘성령론’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된 성령 사역이, 사도행전1~15장에만 나타나 있지 않다. 후에, 베드로가 과거 놀라운 성령안에서의 활동과 역사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에도 성령사역이 나타나 있다. 그를 통하여 계시된 성령 사역을 보다 전체적이며 객관적으로 바로 이해 할려고 한다면, 사도행전 안의 관련된 부분에 대한

1) 한국 신학관계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집(1945~1985)-1985, 박창환, 서울 : 장신대 출판부 -에 의하면 ‘성령론’과 관련된 논문이 '81년도부터 해마다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 문제점에 관한 내용은, Brunner, F.D.,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1982), pp.35-46 ; Gaffin, R.B.Jr., *Perspectives on Pentecost* (1980), pp.9-11 ; Hoekema, A.A., *Holy Spirit Baptism* (1975), pp.5-14 ; Dunn, J.D.G., *Jesus and Spirit* (1978), pp.1-7 ; Stott, J.R.W., *Baptism and Fullness :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day* (1979), pp.7-14등을 참조하라.

바른 분석적인 해석을 함과 동시에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성령 사역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 시킬수는 없다. 사도행전의 관련된 내용은, 주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A.D. 40년대²⁾까지의 것들인데, A.D. 60년대에³⁾에 계시된 베드로 서신의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서신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사도행전에서만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서신에서만 특이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가 밝혀 질 것이다. 양쪽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양쪽의 공통적인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에 무엇을 강조하고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양쪽에 공통으로 나타날 성령 사역 내용이 밝혀 질 때, ‘성령론’을 둘러싼 문제 해결이 과연 어느 정도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번 연구에서 밝혀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 사역을 사도행전1~15장을 중심으로 다루되, 관련된 본문을 가능한 전·후 문맥의 흐름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성령에대한 직접 언급이나 사용 부분은 물론, 문맥상 가능할 경우, 성령을 통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 활동, 강조점 까지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베드로 전·후서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계시된 성령 사역의 면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성령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으나, 분명한 ‘성령 역사의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고려의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이다. 그 다음 장은, 이 밝혀진 사도 행전과 서신의 성령 사역의 비교가 될 것인데, 특히 주님께서 일찌기 미리 설명해 주셨던 성령 사역의 중요한 내용들(요14 : ~16 :)에 비추어 검토, 분류될 것이다.

II.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 사역 : 행1~15장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장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 : 1~12 : 25와 후반부 13 : 1~28 : 31이다.⁴⁾ 전반부에서는 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를 기록했고,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로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까지⁵⁾에 대한 복음 선교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전반부의 마지막 12장17절은, 베드로가 다른 곳(ἕτερον τόπον)으로 떠나간 것을

2) 본 연구의 IV장을 참조하라.

3) Ibid.

4) Du Plessis, I.J., "Introduction to the Book of Acts" (1983, 이후 "Acts"로 약기함), p.208 ; Gundry, R.H., *A Survey of the New Testament* (1975, 이후 *Survey*로 약기함), pp.251-252 ; Gaebelien, A.C., "The Acts of the Apostles" (1979, 이후 "Acts"로 약기함), p.255

5) Van Unnik, W.C.는 "The 'Book of Acts' the Confirmation of the Gospel" (1960), pp.39-40에서, Rome를 반드시 행1 : 8의 지리상의 '땅 끝'(ἕως ἑσχάτου τῆς γῆς)으로 해석하여 이의 완전한 성취가 사도행전으로 끝난것으로 보지 않는다.

언급하므로 여기서 부터 그의 주된 활동이 갑자기 중단되고 있다.⁶⁾ 그러나 15장에서는 베드로가 특별히 예루살렘 총회에 나타나서 성령과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련하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사역면들을, 행 15장까지 포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베드로와 관련된 성령 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다음의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1.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내용 분해, 2. 행 1~15장에서 '성령'(혹은 '영')에 대한 언급들, 3. 베드로를 통한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사역(1~7장) 4. 베드로를 통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성령 사역(8:1~40), 5. 이방인을 향한 성령 사역(10~11, 15장):

1.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내용 분해

Du Plessis, I.J.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에 대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 지적하여 요약하고 있다:⁷⁾

- (1) Baur, F.C.의 주장인데, 사도행전은 후대 (2C.경)에 유대와 이방인 신자간의 불화를 치유키 위한 목적으로 편집되었다고 한다. 즉 유대인 신자의 대표적인 베드로와 이방인 신자의 대표 바울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본다.
- (2) Baur의 사상을 다소 발전시킨 Schneckenburger, M.은 사도행전을, 유대인들과 맞서 있는 바울에 대한 일종의 변명서(apology)⁸⁾로 간주한다. 그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전체 내용 가운데서 베드로와 바울간의 조화가 강조된 반면, 유대인 신자들의 바울에 대한 적대 사실들에 대한 침묵에서 증명하려고 한다.
- (3) Weiss, J.는, 사도행전은 이방 세계로 보낸 문서인데, 세계속의 기독교 선교는 유대주의와는 완전히 별개의 어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위에 요약된, 소위 '경향 비평'(Tendency criticism)에 근거한 사도행전 목적관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약점과 허구성 이 들어나 이제는 그 이론이 성립될 수 없다.⁹⁾ 사도 행전의 본래의 기록 목적을 가장 공정하고 바르게 파악하려고 할때, 저자인 누가

(Luke)¹⁰⁾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¹¹⁾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요점 귀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¹²⁾

사도행전 1:1~2; 1:8; 9:15의 세 본문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 된다.¹³⁾ 세 곳의 본문을 특히 기록 목적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살펴 본다:

(1) 행 1:1~2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 하였노라”

이 본문은, “내가 먼저 쓴 글”(τὸν μὲν πρῶτον λόγον: NEB-“In the first part of my work”)에서 암시하듯,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누가복음의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¹⁴⁾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 부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시기 까지의 일을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다. 사실 누가복음은 그 마지막 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고(눅 24:44~49)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간단한 언급(24:51)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시작의 1,2 절에서의 반복이 있은후, 세번째 반복 즉 예수님의 승천사건(행 1:6~11)이, 예수님의 말씀(행 1:4~5)이후에 또 다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승천’ 패턴이 단일 저작으로서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세 차례 중복 된 것은 물론 강조적임을 보여 준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기간은 바로 그의 지상 사역의 결론이며 또한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요 출발이 된다.¹⁵⁾ 제이부인 누가복음에 이어서, 제이부인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계속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들-성령에 의한 사도들의 활동을 통하여-에 대한 기록임을 보여주고 있다.¹⁶⁾ 사도행전의 주제는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한다.

6) Marshall, I.H., *The Acts of the Apostles* (1981, 이후 Acts로 약기함), p.211; Bruce, F.F., *The Book of the Acts* (1977, 이후 Acts로 약기함), p.252

7) Du Plessis, I.J., op.cit., pp.196-197

8) Barrett, C.K. 역시 사도행전을 apology로 보고 있으나, 그는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반 그노시스적 정통성’(anti-Gnostic orthodoxy)을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Luke the Historian in Recent Study, 1961, p.63).

9) ‘경향 비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생략 한다. 여기에 대한 건전한 입장에서 비평은 다음의 자료에서 참조하라: VanUnnik, W.C., op.cit., p.28; Harrison, E.F.,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1968, 이후 Introduction으로 약기함), pp.231-236; Ellis, E.E., *Paul and His Recent Interpreters* (1961), p.20; Du Plessis, I.J., “Acts”, p.197; 간하배 (1976), *신약학 서설*, pp.109-127.

10) Tenney, M.C., op.cit., pp.171-174; Guthrie, D., *New Testament Introduction* (1978, 이후 Introduction으로 약기함), pp.98-109; Harrison, E.F., op.cit., pp.185-190; Thiessen, H.C.,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1979, 이후 Introduction으로 약기함), pp.150-154; Bruce, F.F., op.cit., pp.15-17.

11) Marshall, I.H., op. cit., p.21

12) Van Unnik, W.C., op. cit., pp.34-39

13) Gundry, R.H., op.cit., p.221; Du Plessis, I.J., op.cit., pp.195-7; Van Unnik, W.C., op.cit., pp.29-31; BoReicke, “The Risen Lord and His Church” (1959), pp.157-158

14) 간하배, op.cit., p.167; τὸν πρῶτον λόγον은 누가복음을 가리킨다: Gundry, R.H., op.cit., p.220; Tenney, M.C., op.cit., p.230

15) Marshall, I.H., op.cit., p.56

16) Bruce, F.F., op. cit., p.32: “...the implication of Luke’s words is that his second volume will

(2) 행 1: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귀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사도행전 전체의 윤곽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사도들이 중심이 된)에게 성령강림이 있을 것이고, 이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에 걸쳐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귀절의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의 대체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¹⁷⁾

- (1) 베드로를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증거: 1~7장
- (2) 베드로를 통한 사마리아와 그 외의 지역에서의 증거: 8~12장
- (3) 바울을 통한 먼 이방 지역에서의 증거: 13~28장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의 증거의 목표 혹은 증거의 초점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증인들’, ‘부활의 주’, ‘만민’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에서 표현되고 있다.

(3) 행 9: 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은, 주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 들이켜 장차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바울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행 1: 8에 나타난 증인으로서의 활동 영역 범위 중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한 부분의 보다 구체적인 별도 제시 부분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다.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 활동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후반부(13: ~ 28:)에서 구체적으로

- (1) “이방인”에게(13: ~20:),
- (2) “임금들”에게(24: ~26:), 그리고
- (3) “이스라엘 자손들”에게(22: ~28:)

각각 나타날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사도행전은, 그 주제(theme)와 목표(objective)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며,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을 통하여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만아 아니라, 만민을 향해 땅 끝까지 그를 증거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복음 확장이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be an account of the things which Jesus continued to do and teach after His assension by His Spirit in His followers”

17) Gundry,R.H., op.cit., p.221

배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가능 했음을 기록으로 보여준다.

위의 모든 사실을 참조하여 사도행전 내용의 대체적인 분해¹⁸⁾를 하면 다음과 같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

I. 교회(베드로 중심)를 통한 성령의 증거¹⁹⁾(1: ~12:)

- 1. 예루살렘에서(1: 1~7: 60)²⁰⁾
- 2. 유대와 사마리아에서(8: 1~40)²¹⁾
- 3. 이방 선교의 시작(9: 1~12: 25)²²⁾

II. 교회(바울 중심)를 통한 성령의 증거(13: ~28:)

- 1. 소아시아에서(13: 1~15: 35) * 제1차전도 여행
- 2.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15: 36~18: 17) * 제2차 전도여행
- 3. 아시아에서(18: 18~20: 38) * 제3차 전도 여행
- 4. 예루살렘으로 부터 로마까지(21: 1~28: 31)

다음 장에서는, 1~15장에 사용된 모든 ἅγιος πνεῦμα(혹은 πνεῦμα)의 빈도의 특징 및 그 의미를 살펴 보므로써, 성령의 증거적 사역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2. 행 1~15장에서의 ‘성령’(혹은 ‘영’)에 대한 언급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 (The Acts of the Holy Spirit), 혹은 ‘성령 복음’ (The Gospel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표현될 만큼²³⁾누가는 여러 사건들과 사도들의 활동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주된 인물로 활동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관련해서 살펴 볼때, 더욱 분명해 진다. 사도들의 활동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리자로서(representatives) 전적으로

18) 사도행전의 분해는 학자들 간에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분해를 위해서는 Gundry, Survey, pp.251-253 ; Marshall, Acts, pp.51-54을 참조하라. Cadoux,C.J.(“The Chronological Divisions of Acts”, 1918, pp.333-341)는, 초대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여 점점 흥왕해 가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귀절, 2: 47 ; 6: 7 ; 9: 31 ; 12: 24 ; 16: 5 ; 19: 20 ; 28: 30-31에 따라 사도행전은 7개 부분으로 구분,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고 있다: 오병세, 신약개설(1986), pp.99-101

19) Gundry는(Survey, p.217, 231) 사도행전의 전반부 1: 1-12: 25와 후반부 13: -28: 31의 주제를, “The Acts of the Spirit of Christ”...로, 각각 표현하고 있다.

20) Harrison, Introduction, p.222

21) Ibid.

22) Marshall, Acts, p.52

23) Ibid., p.32 ; Gaebelain,A.C.,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n.d.), p.31 ; Ehrhardt, A., “The Construction and Purpose of the Acts of the Apostles”(1958), p.55 ; Guthrie, D., Introduction, p.350

부활하신 주님의 도구로서(instruments)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²⁴⁾

행13~14장은, 바울을 통한 선교 활동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제외한 1~12장과 15장에서 베드로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하여 나타난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는 모두 30회,²⁵⁾ '주의 영'이라는 이름이 한 번(5:9) 사용되고 있다.²⁶⁾ 이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 바울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하여 '성령'이 언급되고 있는 빈도 15회²⁷⁾보다, 배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베드로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ἅγιος πνεῦμα(혹은 πνεῦμα)의 전후 문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다. 이 용어들은 성령님의 사역, 활동 및 그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들이다:

- μαρτυρέω, -tus, -τύριον ; διδάσκω, -χή ; κηρύσσω와
(증거하다) (증인) (증거) (가르치다) (교훈,교,도리) (전하다,설교하다)
- εὐαγγελίζω ; δύναμις ; τέρας ; σημεῖον
(복음을 전하다) (능력,권능) (기사) (표적,징조)

사도행전1~15장에서, 베드로와 관련된 ἅγιος πνευμα(혹은 πνευμα)와 이의 전후 문맥 주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용어들²⁸⁾의 빈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ἅγιος)πνεῦμα와 중요한 용어 빈도수²⁹⁾

이름 (용어) 장	ἅγιος πνεῦμα	μαρτυρέω -tus-ριον	διδάσκω -χή	κηρύσσω εὐαγγελίζω	δύναμις	σημεῖον τέρας	
1	4	2	1		1		↓ 예 루 살 렘 에
2	6	1	1		1	6	
3		1			1	4	
4	2	1	2		2		
5	3	1	5	1		2	

24) Bo Reicke, op.cit., pp.157-158

25) 행1:2, 5, 8, 16 ; 2:4(2회), 17, 18, 33, 38 ; 4:8, 31 ; 5:3, 32 ; 6:3, 5 ; 8:15, 17, 18, 19 ; 10:9, 38, 44, 45, 47 ; 11:12, 15, 16 ; 15:8, 28

26) 동일 범위내에서 스테반과 관련하여 '성령'이 3회(6:10 ; 7:51, 55), 빌립과 연계되어 2회(8:29, 39) 사용되고 있다.

27) 행9:17, 31 ; 13:2, 4, 9, 52 ; 16:6, 7 ; 19:2(2회), 6 ; 20:23, 28 ; 21:4, 11 ; 28:25

28) Van Unnik,W.C. ("The 'Book of Acts' the Confirmation of the Gospel", 1960, p.35)는, 누가의 기록상의 특징을 "there is a great unity in style and choice of words"라고 했다.

29) 행1:-15: 중에서, 9장은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고, 13, 14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 시킨다.

	6	2	2			1	2	서
	7		2				2	↑
	8	4			6	2	2	유대 사마리아
베	10	5	4		3	1		↓ 이 방 선 교
드	11	3		1	1			
로	12							
↑	15	2		2	2		2	
	계	31회	15회	12회	13회	9회	20회	
↓		↓	↓	↓	↓	↓	↓	시 작 ↓
바		(15)	(10)	(7)	(6)	(1)	×	

위의 도표 내용을 전후 및 좌우로 비교,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3,7,12장에는, '성령'에 대한 이름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성령'의 활동의 연장임을 알 수 있다. 3장은, 베드로를 통한 치유의 역사와 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7장은 사도들이 세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행한 긴 설교이며, 12장은 교회를 향한 박해, 베드로의 투옥 및 이적적인 출옥 사건의 기록이다.
- (2)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2장은 '성령'에 대한 이름들과 함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직접 서술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장에 이어, 3장에는 '성령' 이름 대신, 내용적으로 이적적인 역사로 채워져 있다.
- (3) 5장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강조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5:1~11) 이후, 성령을 통한 교회(사도들)의 일에 대한 인간적 오해(무지)를 자세히 깨우쳐야 할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 (4) κηρύσσω와 εὐαγγελίζω 동사가 7장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5장에 1회만 나타남), 8장과 10장에서 두드러지게 빈도가 증가된 것은, 주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활동(1~7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쪽(8:1~40)으로 옮겨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유의할 수 있다. 10장 역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대한 복음 전파 내용이다.
- (5) 전체적으로 볼 때, 15장까지의 베드로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이름 및 중요한 용어들의 빈도는, 9, 13, 14장과 더불어 16장 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것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이 특이하다. 특히 δύναμις와 σημεῖον 및 τέρας는 16장 이후부터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³⁰⁾ 이것은, 사도행전의 전반부

30) δύναμις 는 19:1에 한번 사용되고 있다. σημεῖον 및 τέρας 는, 16장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주로 베드로를 통한 활동)가 후반부(주로 바울을 통한 활동) 보다 월등하
다거나, 강력한 것이었다거나, 혹은 베드로와 바울간의 능력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모든 사실들로 보고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사도행전 2장은 ἅγιον πνεῦμα, σημεῖον, τέρας에 대한 가시적이며 또한 가칭적인³¹⁾
표현에 있어서도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 사역의 바른 이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바른 이해와 직결 된다.

(2) 베드로와 바울은 성령을 통한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동일한 능력자들
이었으나, σημεῖον 혹은 τέρας의 사용은 시간적으로 오순절 사건 당시와 그 가장 가까운
시간대 (A.D.30~47)에 집중되어 있다.³²⁾ 이는 역사적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직후 상황의 특수성을 설명해 준다.

(3)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사역과 ‘증거’, ‘가르침’, ‘복음 전파’의 제기능들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얻은 결론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사역이
지역과 족속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사역면들을 고찰하려고 한다.

3.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사역(행1~7장)

행 1:18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루살렘”에서 부터 시작 될 것임을 밝혔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행1~7장은 바로 그 첫
단계로서 주로 예루살렘에서의 증거활동이 이루어진 부분이다.³³⁾ 6:10~7:60은, 스테반이
중심이 되어 복음을 증거한 부분의 기록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1~6장 내에서의 베드로와
관련된 ‘성령’ 사역을 다음의 분류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1)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증거(1~2장), 2) 베드로의 성령 충만(3~4장), 3)
교회의 ‘권징’³⁴⁾과 주의 영광(5장), 4) 성령 충만한 자의 선택(6장)

31) Van Unnik, op.cit., p.36

32) 행2장(A.D.30경) - 행13장(A.D.47) - 행28(A.D.60) : Tenney, op.cit., p.232, 254 ; Gundry, op.
cit., pp.232-233 ; 박형용, 사도행전(교회확장의 원리, 1981), p.211

33) Harrison, op.cit., p.222 ; Gaebelien, A.C., "The Acts of the Apostles"(1979), p.255

34) Guthrie, D., (New Testament Theology, 1981, p.856), Poole, M., ("The Acts of the Apostles"(1979,
pp.398-9) 등은 5:1-11의 내용을 "Gods judgements"로 표현했고, Gaebelien, A.C., (op.cit.,
p.268), Vander Waal, C., ("Acts", 1978, p.54) 등은, "the first discipline" 혹은 "disciplinary measu-
res"로 표현하고 있다.

1)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증거(1~2장)

사도행전을 전체의 구조면에서 볼 때 누가는 분명한 구상, 계획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이르는 뚜렷한 과정 위에서 역사적 내용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성 원리는
제일부 기록인 누가복음의 짜임에 따르고 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양쪽 모두가
전체에서 보면,

‘서론(혹은 준비)→성령 부어주심→본론(주된 사역)→수난→부활(혹은 구
원)’

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³⁵⁾ 누가의 이와같은 기록상의 특징이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적용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장(서론 혹은 준비)→2장(성령 부어주심)→본론전개’

그리고 누가의 글에는 어떤 사건 (경우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이 기록된 후, 그 사건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계되는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서술, 의견, 설명이 보통 나타나게
마련인데,³⁶⁾ 2장내에서도 그 적용을 볼 수 있다.

(1) 2:1~47

- ① 오순절 성령 강림 1~42절
- ② 그 결과 서술 43~47절

(2) 2:1~42: 오순절 성령 강림

- ① 사건의 사실 내용 1~13절
- ② 사실 내용의 설명(증거) 14~42절

(3) 2:14~42: 사실 내용의 설명(증거)

- ① 베드로의 설명(증거) 15~36절
- ② 설명의 결과 37~42절

1장에서의 성령의 역사

행 1장은 전체의 ‘서론’격이며, 동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준비’에 해당한다. 서론및
준비의 장으로서 여기서는 ‘성령’에대한 명칭이 모두 4회(1:2, 5, 8, 16) 나타난다. 매우
강조적인 사용 빈도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기서의 ‘성령’ 언급 모두가 직접 혹은 간
접으로 사도 베드로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타난 본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1~2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까지의 일을 기

35) Rackhan, R.B., "The Acts of the Apostles"(1965), pp.77ff. ; Van Unnik, op. cit., p.35

36) Van Unnik, ibid.

특하였느니라”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ἐντειλάμενος τοῖς ἀποστόλοις 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οὓς ἐξελέξατο)

여기서 문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³⁷⁾ 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를 ἐξελέξατο에 연결시켜 해석하느냐, 혹은 ἐντειλάμενος에 관련 시키느냐의 문제다. 전자의 경우를 받아드린다면, “성령으로 택하신 그의 사도들”이 될 것이고, 후자를 받아드린다면,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가 된다.

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를 ἐξελέξατο에 연결 시킬 경우, 이는 아마도 구(phrase)의 특별한 위치 변경이 되어, 강조를 위한 것일 수 있다.³⁸⁾ 본문에서 강조적인 위치까지 받아 드린다면 다음의 내용이 될 수 있다.³⁹⁾

(1) 예수님께서 “성령으로(통하여)” 사도들을 택했다.

(2)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사도들에게 명했다.

위의 두 사실 내용은 이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인데 (눅6:13~16 ; 24:44~49 ; 마 28:19~20), 누가의 제이부인 사도행전의 첫 시작에서 다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의 모든 활동의 근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내용의 연속이며, 복음서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사실의 기록인 눅 6:13~16 ; 마10:1~4 ; 막 3:13~19에, 그들을 부르실 때 “성령으로” 하셨다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새롭게 밝힌 것은, 제자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는 사실의 강조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 28:19~20과 눅 24:44~49에서 ‘선교적 사명’ 을 명하실 때, 거기에는 “성령을 통해서” 했다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였다고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베드로와 관련시켜 다시 표현한다면,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였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선교적 명령을 받은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하여” 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를 취하여 해석하든, 다음의 사실은 분명하다 :

삼위 하나님의 공동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의 공동 사역을 볼 수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 사역을 베푸실 때, 그 준비 단계로서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그때 성령님께서도 관여하셨다는 사실이다. 눅6:12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후 사도들을 부르셨다. 아들 예수님께서 땅위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내 아버지의

37 Meyer, H.A., *The Acts of the Apostles*(1979), p.25
38 Ibid. ; Marshall, *Acts*, p.57
39 Poole, M., “The Acts of the Apostles”(1979), p.385 ; KJV에는, “...after that he through the Holy Ghost had given commandments un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으로 되어 있다.

약속하신 것”(눅24:49)을 명하실 때도 역시 “성령을 통하여”하셨다. 이것은, 베드로를 중심한 모든 사도들의 복음 사역의 출발과 그 과정,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의 내용, 활동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준다.

성령 사역의 주된 강조점은,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택함을 받고, 명령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임을 기억시키는 것이며, 사도들의 활동의 주관자,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알리는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주체요 목적이다. 나는 다만 “δια”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신다.

(2) 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ὅτι Ἰωάννης μὲν ἐβάπτισεν ὕδατι, ὑμεῖς δὲ ἐν πνεύματι βαπτισθήσεσθε ἅγιον οὐ μετὰ πολλὰς ταύτας ἡμέρας)

다양한 해석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절이다.⁴⁰⁾ 이 본문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1)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해 주신 말씀이다. 이 내용은 이미 복음서에서 4번이나 (마3:11 ; 막 1:8 ; 눅 3:16 ; 요 1:33) 예언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된 것이었다. 그런데 약 3년이 경과한 후 누가를 통하여 여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직접 음성을 또 다시 듣고 있다.
- (2) “너희는...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표현에 있어서, 복음서의 것들과 여. 기의 것과의 차이가 있다. 복음서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그 ‘주어’가 되어 있고, 주어를 받는 동사 “세례를 주실 것이다”가 모두 능동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동사 βαπτισθήσεσθε는 수동태다. 세례를 베푸실 자이신 예수님이 생략되어 있다.
- (3) 본문의 “너희(ὑμεῖς)”는 앞의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그의 택하신 사도들”(1:2)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복음서의 네 곳의 표현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가. 마3:11-ὕμᾱς :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고 책망을 받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마3:7)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40) 이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참고 : 고재수, *성령으로의 세례와 신자의 체험*(1989), pp.66-69 ; 이승미, “성령으로의 세례”(1987), pp.223-241

나. 막1: 8-ὕμᾱς :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죄를 자복하고 요한으로 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막1: 5)

다. 눅3: 16-ὕμᾱς : “독사의 자식들아”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무리, 세리들, 군병들...을 포함하고 있다.(눅3: 7-14)

라. 요1: 33-ὕμᾱς : ὕμᾱς의 사용없이 매우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다:

ὁ βαπτίζων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

(4) 본문의 ὑμεῖς(너희)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여기에 베드로를 포함한 11 사도들을 중심하고 있다. 이들은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의 “성령으로”(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와 사도들이 최초의 복음을 받고 명령을 받을 당시의 “성령으로”(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성령 앞의 전치사 ἐν과 διὰ의 차이는 있다.양자간의 “성령”은 동일한 것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5) 여기 “몇날이 못되어” (οὐ μετὰ πολλὰς ταύτας ἡμέρας)란, 때가 매우 임박했음을 지적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10일 전의 때를 말한다.⁴¹⁾ 5절의 첫 단어 ὅτι를 4절이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⁴²⁾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10일 후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가 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ατρὸς : 율2: 28-32 ; 사3: 15 ; 눅24: 49 ; 행 1: 4)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ἐν πνεύματι βαπτισθήσεσθε ἁγίῳ)에 대한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며⁴³⁾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게 된다(행1~2장). 당시 사도들이 5절의 내용을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 듣고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매일 매일 기다리기만 하면,⁴⁴⁾ 10일의 때가 찰 때 성령님은 오시게 되어 있다. 성령 강림은 결코 사도들이나 모인 무리의 인간 편에서의 탁월한 행동, 열심 여하에 달려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 사도들의 준비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었다.

위의 사실들로 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1) Gloag, P.J., *Acts of the Apostles*(1979, vol.1), p.46 ; Poole,M., op.cit., p.385
42) 고재수, op.cit., p.67
43) Chantry, W.J., *Signs of the Apostles*(1979), p.83 ; Bruner, F.D.,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1982), p.157
44) Poole,M., op. cit., p.385 : “...but our Saviour would not prefix a certain day that they might watch every day”

(1)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하신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 부활의 주님은 승천을 앞두고 이를 최후로 증거하신 것이다.(행1: 4~5) 성령님은, 때가 찰 때(오순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했고 신실했음을 만민에게 생생하게 증거하실 것이다.(행2장)

(2)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사도들이 과거에 부름 받고 명을 받을 때의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라기 보다 분명히 구분되는 특별한 차원에 속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사도들은 옛날 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통하여”(διὰ)사역해 왔기 때문이다.

(3)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게 될 대상은, 넓은 의미로는 ‘만민’이며, 좁은 의미로는 ‘사도들’이다. 넓은 의미란, 부활, 승천하여 영광 받으신 구주 예수의 복음이 이제 제한없이 (인종, 지역), 일반적으로 개방되었음을 뜻하고,⁴⁵⁾ 좁은 의미란, 교회(사도들)의 구체적 증거,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이 계속 설명되고 적용됨을 뜻한다.

(4)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사도들과 당시 무리의 훌륭한 활동과 열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적 사건들 중의 하나에 속한다.

(5)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아직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지 못한 고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아직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날이 못되어” 부활의 주님께서 이적적인 광경중에서 승천하시는 일과 그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될 것이고, 행2장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 그들은 주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⁴⁶⁾ 그리하여 그들은 위임 받은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3) 1: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ἀλλὰ λήμψεσθε δύναμιν ἐπελθόντος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φ’ ὑμᾶς, καὶ ἔσεσθέ μου μάρτυρες ἐν τῇ Ἱερουσαλὴμ καὶ ἐν πάσῃ τῇ Ἰουδαίᾳ καὶ Σαμαρείᾳ καὶ ἕως ἔσχατου τῆς γῆς.)

이 내용은, 베드로와 그외의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사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부활의 주님으로 부터 이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45)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된 복음의 보편성(te univeralism of the gospel)이해를 위해서는 Boer, H.R., *Pentecost and Missions*(1979), pp.53-59를 참조하라.
46) Poole, op.cit., p.385

감격적인 이해나 경험, 적용은 없다. 예언적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얼마후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과를 깨닫고 주님을 더 감격하여 증거할 것이다 :

(1)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주님으로 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⁴⁷⁾ (ἐπελθόντος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φ’ ὑμᾶς)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서의 “성령”은 (비록 동일한 ‘성령’을 가리키기는 하나)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동일 사역 차원의 ‘성령’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령’일 것이다.⁴⁸⁾ 아직은 베드로도 이와 같은 성령(오순절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동일 내용의 다른 일련의 표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
-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
-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2)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⁴⁹⁾ (λήμψεσθε δύναμιν)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δύναμις는 사도 행전 전반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여기서의 δύναμις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다. 누가는 사실 자주 δύναμις를 ‘성령’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눅4:36 ; 5:17 ; 24:49 ; 행10:38),⁵⁰⁾ 본문의 것은 문맥상으로 보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결과와 관련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들이 과거에는 δύναμις를 받은 적이 없었던가? 사실 그들은 받았다 :

마10: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 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ἐξουσίαν)을 주시니라”

막6:7 “열두 제자를 부르사...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ἐξουσίαν)를 주시고...”

눅9: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δύναμιν)과 권세(ἐξουσίαν)로 주시고...”

위의 내용을 보아, 행1:8의 δύναμις는 일반 백성이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는

이적적인 치유의 능력에 강조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것은, 주로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부활하여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관계되어 있다.

(3)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예수의 증인”(μου μάρτυρες)이 될 것이다.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대 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 내용의 범위는, 주님의 부활, 부활 후 땅위에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놀라면서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사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등..., 주님의 사역의 완성된 부분 전체를 포함하며, 주의 재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의 분명한 증거자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증거’, ‘증인’의 용어가 강조적으로 사용된 것은 장차 사도들이 활동하게 될 이 세상의 상황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복음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할 것임을 미리 내다 보신 것임에 분명하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반항적이며(antagonism) 적대적(hostility)일 것이다.⁵¹⁾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증인들로서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⁵²⁾ 성령님은 분명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을 중심한 무리위에 임하실 것이고, 특히 사도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여 옛날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하거나 주를 떠나 버렸던 때와는 달리,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두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옛날과 같이 유대인만을 위한 편협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민족 국경을 초월한 만민과 세계를 향한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사도들의 앞길에 예상되는 복음의 적대 행위나 반항적 세력을 아신다. 그러나 성령님의 주된 역사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과 분위기를 완전히 제거 시키는데 있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신다.

(4) 1: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πληρωθῆναι τὴν γραφὴν ἣ προεῖπεν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διὰ στόματος Δαυὶδ περὶ Ἰούδα...)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 11사도들(행1:13)과 그외의 무리 약 120명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한 것인데,

51) Trites, A.A., "Witness"(1978), p.1049

52) Ibid. ; 동일 저자의 The New Testament Concept of Witness(1977), pp.80-81

47) “임하면”(ἐπελθόντος)의 동사는 제2부정과거, 분사다.

48) 요14:16, 26 ; 15:26 ; 16:7 에서는, 주님께서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을 가리켜 ‘ὁ παράκλητος로서의 성령’으로 표현하셨다.

49) 어떤 성경의 난 외에는 “the power of the Holy Ghost coming upon you”로 되어 있음 : Gloag, P.J., Acts, p.48 ; Poole, op. cit., p.385

50) Bruce, F.F., "The Holy Spirit in thhe Acts of the Apostles"(1973), pp.169-170

그의 말은, 구약 시편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제 가룟 유다의 결말에 대한 바른 성경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해석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때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왜 함께 부르셨는지 그동안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눅 6 : 12~16에 의하면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12을 부르셨다. 이것은 인간 차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모든 제자들과의 최후 만찬 석상에서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 하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요13 : 18 ; 시41 : 9)는 말씀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땅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인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인 무리를 향해 증거하매 상기 시키고 있다.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은, 이미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는데 (시41 : 9 ; 행1 : 17~20 ; 시69 : 25 ; 109 : 8), 그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생활 가운데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증거다.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것은 이미 하신 예수님의 구약에 관한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결과일 것이다. :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24 : 25~, 44~)

베드로는 구약의 원저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성령임을 확증하고 있으며 그의 앞으로의 많은 증거도 이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⁵³⁾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구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적(특히 가룟 유다와 관련된)을 통하여 나타난 주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다.

행 2장에서의 성령 역사

서론으로서의 1장에서는 주로 복음서와 관련시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기시킨후,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의 사실을 기록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암시하는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다가 사도 맛디아를 선택하므로 사도의 숫자 ‘12’를 채우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 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Μαθθίαν, καὶ συγκατεψηφίσθη μετὰ τῶν ἑνδεκά ἀποστόλων)

53) Bruce,F.F., *Acts*(1977), p.48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는 신약 교회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 구약의 언약의 백성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순수한 12 사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대표하는)로 구성하고 있다.⁵⁴⁾

여기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1~42절)과 그 결과(43~47절)내에서의 성령의 역사 부분을 살펴 보고자 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2 : 1~42)

여기에는 성령 강림 사건 현장에 대한 서술(1~13절)과 그 사건에 대한 설명 및 해석 (14~42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건 현장에 참석하여 목격하고, 놀라워 하고, 이상하게 생각은 했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무리를 향해 교회(12사도)는 이를 설명했고, 동시에 설명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1) 2 : 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하니라”

(καὶ ἐπλήσθησαν πάντε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ἤρξαντο λαλεῖν ἑτέραις γλώσσαις καθὼς τὸ πνεῦμα ἐδίδου ἀποφθέγγεσθαι αὐτοῖς)

여기의 πάντες 는 사도를 포함한 모든 무리를 말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서 불 때, 만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2 : 11)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그 주재와 목적이 될 교회 탄생의 취임식에 모든 무리가 참석하고 있다.⁵⁵⁾ 그 때 성령에 의한 ‘다른 방언으로 말한 것’(λαλεῖν ἑτέραις γλώσσαις)은 극적이고도 독특한 일 이었다.⁵⁶⁾ 아마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행2 : 11)을 무리들 모두에게 놀랍게 말하고 들려주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이다.⁵⁷⁾ 하나님의 뜻에 미련하고 무지 했던 발람 선지 앞에서, 나귀의 입을 여시는 놀라운, 특이한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민22 : 21~35), 여기서는 성령을 통하여, 무리의 입을, 여신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한 능력을 보고는 주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 :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다양한 언어의 지역들)이르러 그의 증인의

54) BoReicke, “The Risen Lord and His Church”(1959), p.104

55) Gaeblein, A.C., “The Acts of the Apostles”(1979, vol.3), p.259 ; Tenney, M.C., *Survey*, p.238 ; Bruce.F.F., “The Holy Spirit in the Acts of the Apostles”(1973), pp.170-174

56) Chantry,W.J., *Signs of the Apostles*(1979), p.83 ; Boer, H.R., *Pentecost and Missions*(1979), p.101

로서의 활동 가능성을 실제로 그 예증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2) 2 : 14~18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ἐκχεῶ ἀπὸ τοῦ πνεύματος μου ἐπὶ πᾶσαν σάρκα...ἐκχεῶ ἀπὸ τοῦ πνεύματος μου...)

행2 : 1~13은 넓은 의미로서의 성령 강림에 대한 전체적인 서술인데, 이어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바른 해석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14~42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듣는 것 등의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의혹하고, 때로는 조롱하여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상황속에서 교회를 통한 바른 메시지는 무리로 하여금, 이상한 분위기로 부터 하나님의 말씀(2 : 17~21 ; 2 : 25~28 ; 34~35)에 귀를 기울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⁵⁷⁾

여기서의 분명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1)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오순절의 성령 강림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을2 : 28~32)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2) 베드로 개인의 증거가 아니고, 12사도의 공통된 하나의 (14절 : ὁ Πέτρος σὺν τοῖς ἑνδεκά) 증거다. 베드로는 다만 사도들의 대표자로서 발언하고 있을 뿐이다.
- (3)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부로 보이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 분위기 속에 있는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성령님은 놀라운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는 무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려 주었고(2 : 30~32), 주님의 승천과 함께 영광의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2 : 33~36)

(3) 2 : 33

“하나님이 오른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τῇ δεξιᾷ οὖν τοῦ θεοῦ ὑψώθη τὴν τε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ρίου λαβὼ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ξέχεεν τούτο ὃ ὑμεῖς [καὶ] βλέπετε καὶ ἀκούετε)

57) Boer, H.R., *ibid.*, p.102

58) Bruner, F.D.,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1982), p.155

본문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과정 중의 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이어 일어났던 일이다. 32절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지라”고 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라고 하여,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했는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밝힌다.⁵⁹⁾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⁶⁰⁾을 받아 (λαβὼν), 무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고 하고 있다. 베드로의 성령을 통한 설명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특별한 점은,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약속된 그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으로 표현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 자신임이 밝혀진 셈이다. 이것은, 이 사건의 중요한 주제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다.

(4) 2 : 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Πέτρος δὲ πρὸς αὐτοὺς, Μετανοήσατε, καὶ βαπτισθήτω ἕκαστος ὑμῶν ἐπὶ τῷ ὀνόματι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εἰς ἄφεσιν τῶν ἁμαρτιῶν ὑμῶν, καὶ λήψεσθε τὴν δωρεὰν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ὑμῖν γὰρ ἐστὶν ἡ ἐπαγγελία...)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이미 분위기 상으로는 굉장한 이적적인 상황 속에 있는—를 향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의 내용을 말한 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2 : 36)고 했을 때,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라고 대답하고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2 : 43~47)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의 종류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59) Poole, *op. cit.*, p.390

60) 이것은 expegetic genitive로서, “the promised Holy Spirit”(NIV), “the Holy Spirit from the Father, as was promised”(NEB)로 번역될 수 있다 : Zerwick, M, & Grosvenor, M.,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 T.* (1981), p.355

열 두 사도 그룹(2:14-ὁ Πέτρος σὺν τοῖς ἑνδεκά), 둘째는, 베드로가 “형제들”(ἄνδρες ἀδελφοί, 1:16)이라고 불렀던 사도들과 함께 다락에 모였던 120명의 무리(1:14~16), 셋째는, 천하 각국으로 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Ἰουδαῖοι, ἄνδρες εὐλαβεῖς ἀπὸ παντὸς ἔθνους τῶν ὑπὸ τὸν οὐρανόν, 2:5 ; 2:9~11)이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2사도가 언제나 주역이 되어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 증거, 명령, 혹은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사도의 대표로서의 베드로가, 설교를 끝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절된 무리가 “어찌 할꼬” 하면서 누구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베드로와 사도들”(πρὸς τὸν Πέτρον καὶ τοὺς λοιποὺς⁶¹⁾ ἀποστόλους-2:37)이었다. 이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넓은 의미로서의 관점과 좁은 의미로서의 것을 구분시켜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에 참여는 했고, 그 놀라운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있으나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시요,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무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또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⁶²⁾ 과거에 무지하여 메시아를 못박아 죽였던 무리들이지만,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만민에게 새롭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 주고 있다. 만일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 했던 메시아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는다면 죄의 사유,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날 능력과 축복 등으로 부터 단절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믿음을 촉구하는⁶³⁾ 두개의 ‘부정과거’(aorist)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회개 하라”(Μετανοήσατε, 2:38)

“세례를 받으라”(βαπτισθήτω, 2:8)

만일, 무리중 어떤 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거절한다면,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 참석 하면서도 “성령을 선물로”⁶⁴⁾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여 거주하며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생활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사도들의 말과 가르침(διδαχὴ-2:42)을 받아 드리는 무리들로 하여금 사랑과 기도의 생활로 인도하여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다(2:40-47). 행2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도들이 실제로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음을 보여 주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거듭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61) D사본과 그외의 어떤 사본에는 λοιποὺς가 생략되었음(GNT).
62) 회개의 요구는 이미 세례 요한(마3:2)과 예수님에 의해서(마4:17) 의처졌다. 아직도 회개치 않는 무리를 향해 오순절에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 Bruce, Acts(1977), p.75
63) Ibid., pp.76-77
64) τὴν δωρεάν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the gift of the Holy Spirit)은 expegetic genitive 로서 ‘선물’ 즉 ‘성령’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Zerwick, M. & Grosvenor, M.,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1981), p.356

2) 베드로의 성령 중만 (3~4장)

행3장에는, ‘성령’님에 대한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난 이름 대신 성령님의 내적인 능력과 숨은 인도가 사도들을 통하여 외부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Calvin은 행3:4을 해석하면서 사도들은(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안내자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을 소유한 것’으로, 혹은 ‘성령님의 특별한 격려’를 말하기도 했다.⁶⁵⁾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앓은뱅이된 불쌍한 남자를 일으킨 놀라운 일(1~10절)과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놀아워 하고 있을 때 행한 설교(11~26절)로 구성 돼 있다. 3장에서의 중요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1) 여기서 행한 이적은 결코 베드로의 사사로운 혹은 개인적 차원의 이적 행위가 아니다(3:12). 베드로와 요한(3:1, 3, 11, ...)을 통한 공적인 역사요 사도들의 특별한 이적 행위다. 이를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3:1~4:22).
- (2) 이적을 행한 결과 고침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미 했고(3:8), 그를 본 모든 백성도 찬미하게 되었다(3:9)
- (3) 이적의 결과 하나님을 찬미 함과 동시에, 모든 무리가 사도들에게 주된 관심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을 때,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3:12)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
- (4) 사도들은, 이적을 행한 후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3:15) 가르치는데(4:2) 집중 하고 있다(3:13~26 ; 4:1~2).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있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영광 받으심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전하는데 그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주님의 말씀의 성취의 일면이다.

(1) 4: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τότε Πέτρος πλησθεὶ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ὺς, Ἄρχοντες τοῦ λαοῦ καὶ πρεσβύτεροι...)

사도들(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있는 교훈과 복음 전파는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4:1~2) 사도들은 갈히게 되었다(4:3). 이튿날, 유대의 유명한 지도자들⁶⁶⁾이 다

65) Calvin, J., The Acts of the Apostles(1973, vol.1), p.93
66)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

모인 앞에 사도들이 서게 되었다.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다. 그 때, 누가는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Πέτρος πλησθεὶ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εἶπεν)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증거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가?

그 당시 상황과 베드로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다음의 사실들이 분명해 진다 :

- (1)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의 놀랄 만한 메시지(4 : 13)는 베드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눅12 : 1~12 ; 요14 : 26)이다.⁶⁷⁾
- (2) 복음 증거에 관한 한 두려움 없이 매우 담대 하다(παρρησία-4 : 13). 베드로의 과거의 경우와 비교해 보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작은 한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 했던 그가, 성령의 권능으로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다.
- (3)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이름의 능력’,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의 구원’이었다.
- (4)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4 : 21).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눅12 : 1~12 ; 요14 : 26 ; 행1 : 8)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주를 찬양하고 높이게 된다.

(2) 4 : 31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καὶ δεηθέντων αὐτῶν ἐσαλεύθη ὁ τόπος ἐν ᾧ ἦσαν συνηγμένοι, καὶ ἐπλήσθησαν ἅπαντες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καὶ ἐλάλουν τὸν λόγον τοῦ θεοῦ μετὰ παρρησίας)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린 후, 믿는 무리들과 합류 했을 때, 무리들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4 : 29)라고 기도 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⁶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중심한 문맥에서 다음의 내용을 요약 할 수 있다 :

산더와 몇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4 : 5~6).

67) Calvin, J., op. cit., p.114 ; Marshall, I.H., Acts(1981), p.100

68) Calvin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회기하고 특수한 사건인데,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로 보고 있다(op. cit., p.128).

- (1)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따르는 일단의 무리⁶⁹⁾는 강한 연합된 반그리스도 세력(4 : 28)의 위협(4 : 29)을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행4 : 25~26 ; 시2 : 1~2)의 성취로 이해 하고 있다. 강한 반그리스도, 반복음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능력으로 ‘장소를 진동 시키는’(ἐσαλεύθη ὁ τόπος)기이한 일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담대함을, 동시에 악한 세력에게는 두려움을 주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게 하신다. 4장에서 ‘반그리스도 세력’과 ‘표적과 기사’(혹은 ‘권능’)에 대한 표현 형식은 다음과 같다 :

- ‘반대 세력’(1~2절)
- ‘표적’(16절)
- ‘반 세력’(18절)
- ‘표적’(22절)
- ‘반 세력’(27절)
- ‘표적과 기사’(30절)
- ‘땅의 진동’(31절)

- (2) 사도들의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 드리어, 주를 믿고 순종할 때,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거나 사도들과 꼭 같은 복음적 역사가 가능하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는데, 이 무리의 담대함과 전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그 자신들의 창작물이 아니고 성령으로 부터 받은 것들이다.
- (3) 성령 충만한 무리의 활동 바로 다음에, 사랑에 근거한 유무 상통과 사도들의 계속적인 능력의 부활 증거를 서술하고 있다.

3) 교회의 권징과 주의 영광 (5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복음에 대한 강한 반대 세력이 상존하는 중에서도 사도들의 활동을 통하여 복음이 내용적으로(2 : 44~47), 양적으로(2 : 41 ; 4 : 4) 놀랍게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생생한 열매들의 풍성함 가운데서도 인간 편에서의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사도들) 앞에서의 인간의 ‘거짓됨’이 나타났고, 이 ‘거짓’에 대한 교회의 두려운 권징이 계시된 곳이 행 5 장이다.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난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신자의 구체적인 생활의 질을 높여 주었음을 보여 준다. 유무 상통의 생활이 바로 그것이다.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것을

69) 행2 : 38~39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믿는 무리다 : “회개하여 각각...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다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생활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5장 부터 장면이 바뀌고 있다. 5장은, 의미 있는 δε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물론 그 전에도 δε 를 사용하고 있으나(4: 1, 5, 23, 32) 여기의 것은 전후 문맥으로 볼 때, “그러나”⁷⁰⁾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바로 앞장의 끝부분에 나타났던 바나바와 대조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바나바는 그가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바로 바쳤다. 그러나(δε),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내용의 흐름이다.

여기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나타난다: (1) 5:3 ; (2) 5:9

(1) 5: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εἶπεν δὲ ὁ Πέτρος, Ἀνανία, διὰ τί ἐπλήρωσεν ὁ Σατανᾶς τὴν καρδίαν σου ψεύσασθαί σε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καὶ νοσφίσασθαι ἀπὸ τῆς τιμῆς τοῦ χωρίου ;)

여기,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나타나 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5: 1~3). 그러므로 여기서도 베드로와 성령 역사와의 관계를 말할 때, 교회와 성령님의 관계로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본문에 나타난 성령과 관계 된 중요한 사실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아나니아의 죄는, 그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놓은 후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가져 와서는 모두를 바친 것 처럼 속인 것이다. 그것은 거짓(Lying) 이요 위선(hypocrisy)이며 불신앙(Infidelity)이다.⁷¹⁾ 사도들(교회)앞에 전혀 바치지 않은 죄가 아니라, 많이 바치고도 실패한 경우다. 가난한 자에 비하면 아나니아는 상당한 양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잠15: 8). 마음에 정직성이 빠질 때, 그의 어떤 것도 교회 앞에서는 기쁨이 될 수 없다.

(2) 아나니아는 사도들을 속이면서 바쳤는데, 베드로는 그가 사도들을 속이거나, 베드로 개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하나님’(4절)을 속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들은 후 즉시 혼이 떠나 버렸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 하게 되었다. 사도의 독특한 권위를 보여 준다. 베드로 역시 인간이요 죄인 이지만, 주님으로 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그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로 행하고 말하고 있는 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위의 연장(extension)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성

령님께서 교회안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심’ (“the reality of the Holy Spirit’s indwelling presence in the church”)⁷¹⁾과 그 ‘사실에 대한 진지한 실제의 적용’ (“the solemn practical implications of that fact”)⁷²⁾이다.

(3)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음을 알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성령의 계시’ (“the revelation of the Spirit”)⁷³⁾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단순한 인간 아나니아의 행위 사건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된 행위 였다. 그러므로, 일찌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그대로(요16: 8~11)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 즉 ‘사탄의 실패’를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는 사탄의 실패가 사도들을 통하여 폭로 되었고, 이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φόβος μέγας 5: 11)이 되었다.

(2) 5: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ὁ δὲ Πέτρος πρὸς αὐτήν, Τί ὅτι συνεφωνήθη ὑμῖν πειράσαι τὸ πνεῦμα κυρίου ;)

남편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두려운 심판이, 이어 삼비라 아내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개인’ 베드로이거나, 단순한 ‘인간 집단’으로서의 사도들로만 보고, 그 배후의 ‘하나님’과 ‘주의 영’, ‘성령’, 삼위 하나님의 전체 경영 하심을 보지 못한 자가, 교회 앞에서 가볍게 거짓으로 나타 났을 때, 동일한 심판을 받고 있다. 삼비라에게 던져진 베드로의 질문은, “그 땅 판 값이 이것 뿐이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예 이 뿐이로다”고 대답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그것은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하여 계획적으로 행했던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즉시 혼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5: 11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은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 하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번 반복됨과 동시에, 심판 후의 결론에 대한 서술도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5: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 하니라”

(καὶ ἡμεῖς ἕσμεν μάρτυρες τῶν ῥημάτων τούτων, καὶ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ὃ ἔδωκεν ὁ θεὸς τοῖς πειθαρχοῦσιν αὐτῷ)

70) Gloag, P.J., *The Acts of the Apostles*(1979, vol.1), p.170 ; Marshall, I.H., *Acts*(1981), p.111 ; Gaebelin, A.C., “*The Acts of the Apostles*”(1979, vol.3), p.267

71) 아나니아의 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Calvin, J., op. cit., pp.132~133을 참조하라.

71) Bruce, F.F, *The Acts of the Apostles*(1977), p.112

72) Ibid.

73) Calvin, J., op. cit., p.133

행 5:11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심으로,⁷⁴⁾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의 세력이 교회의 지배하에 있음을 두려움으로 보여 주셨다. 이 사건 이후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5:12), 더러운 귀신들(πνευμάτων ἀκαθάρτων-16절)을 완전히 지배했음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들이 때로는 한 때 옥에 갇혔으나 이적으로 풀려 나와(17~20절)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21, 25, 28절) 증거하는 일(32절)에 집중했다.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광 받으심'이었다(29~31절).

5:32 본문의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라는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는데'(29~31절)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바로 사도 자신들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성령"도 역시 이 일에 대한 동일한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영광 받으심)에 대한 두 유능한 증인을 밝히고 있다:

1. 사도들
2. 성령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는,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고 참된 것임을 적법하게 보여 준다.⁷⁵⁾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바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앞의 문맥을 보아야 한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주된 대상은 분명하다: '대제사장과 그 외의 유대 지도자들. 5장에서, 그들은 계속하여 사도들의 증거를 싫어하고 반대하여 사도들을 옥에 넣어(5:17~18)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명했고(5:28), 옥에서 나온 사도들을 다시 잡아 공회 앞에 세워 놓고(5:27) 경고 하고 있는 무리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 중, 회개의 명령을 들었으나 거절했을 것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5:1~11)도 외면한 후, 반그리스도의 입장에 있는 무리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대한 증인인데, 이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신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도 역시 증인이시다'고 하고 있다. 그 성령님은, 일련의 구원 역사 과정, 즉 '메시아의 초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행1:11)을,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⁷⁶⁾ '예수를 그리스도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2:33, 38~39).

74) Vander Waal, C. 는 "the purifying power of His judgement"라고 표현 하고 있다: "Acts" (1978. vol.8), p.54

75)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거 방식에 따라 참된 증거를 하고 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요8:17~18).

76) 행4:23~31의 무리는, 사도들과는 구분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무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시1:1~2를 인용하면서)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미 성령을

성령님은,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즉 그의 영광 받으심에 대한 증인이시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증거적 활동은, 주님의 말씀이(성령에 대한: 요15:26~27) 신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 주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영원한 구주심을 찬양받게 된다.

4) 성령 충만한 자의 선택 (6장)

행 5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하여 안으로는 교회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크게 과시 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대 세력은 계속 되었다. 계속 되는 핍박과 환난(5:40)중에서도, 교회는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5:42)에 주력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6장에는, 제자의 수가 많아짐과 동시에 교회 내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래 사도들 중 맛디아가 '공케의 일'(διακονίας -행1:24~25)을 맡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다. 앞장에서의 문제점은 '거짓'이었는데, 여기서는 '불평', 혹은 '원망'(γογγυσμός-6:1)이다. 지금까지는 아마 사도들이 들어온 소유의 값을 필요에 따라 직접 분배를 해 왔다(4:35). 그런데 구제를 받는 쪽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다. 불공정하게 분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교회의 불공정한 분배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나, 성령 역사의 열매로 나타난 사랑에 근거한 유무 상통은, 사랑으로 '남에게 주는' 생활(2:45)이 강조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분배에 잘못이 있었다기 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주기'보다 정당하게 '받으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아직 남을 위해 먼저 베푸는 성숙한 생활에 있지 못한 자들의 약점의 일면이다.

사도들은 즉시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지혜로운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케를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οὐκ ἄρεστόν ἐστιν)⁷⁷⁾

사도들의 이 판단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

- (1) 사도들의 주임무: "하나님의 말씀"(τὸν λόγον τοῦ θεοῦ)
- (2) 사도들의 부차적 일: "공케 하는 일"(διακονεῖν τραπέζαις)⁷⁸⁾

이것은, 양자 간의 우열(superiority or inferiority)의 관계라기 보다, 교회의 경영상의 질서 및 보다 유익한 것에 대한 선택의 관계다. 사도들은 그들의 주 임무인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만 전무하려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나한 자를 돌 보는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

77) Calvin, J. 은 ἀρεστόν을 '유익한'(advantageous or beneficial)의 뜻으로 받아드린다: op. cit., p.159.

78) Bruce, F.F.는 "financial arrangements"라고 했다: op.cit., p.128.

일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6:3에는,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택하라”(ἐπισκέψασθε) 당시 사도들 중에 누가 사회자가 되어 이 명령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12 사도의 일치된 하나의 명령이요 뜻이다(6:2). 베드로도 포함돼 있음은 분명하다.

(1) 6: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ἐπισκέψασθε δὲ, ἀδελφοί, ἄνδρας ἕξ ὑμῶν μαρτυρουμένους ἑπτὰ πλήρεις πνεύματος καὶ σοφίας...)

성령의 인도하에 있는 사도들은, 그 주된 임무인 “하나님의 말씀”외의 부수적인 직무인 교회의 ‘재정 업무’ 혹은 ‘구제 업무’ 맡을 사람을 뽑을 때, 그 자격의 첫 내용에다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곳, 행2:4 ; 4:8, 31의 전후 문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79)

- (1)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시며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
- (2) 영광받으신 주님을 환난 중에서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
- (3) 자신에 돌려질 증거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까지도 주님에게 돌릴 수 있는 사람.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집사’⁸⁰⁾의 자격은, 사도들의 증거 내용에 일치하거나, 사도들의 주임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동료 증인들로서의 것이다. 유사시에는, 사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집사직은 보다 차원이 낮은 단순한 ‘재정상의 업무’담당직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에게 재정적으로 나누어 주고 공궐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 할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다.⁸¹⁾

모든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 6:5~6

“은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79) 본 연구의 II-3.-1)~2)를 참조하라.

80) 본문에는 (6:1~6) ‘집사’라는 명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διακονία, διακονεῖν(to serve)가 사용되고 있다.

81) 행2:1~42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43~47절은,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생활이다. 즉 ‘사랑’의 생활이다. 이에 대한 바울적인 표현은 “성령의 열매”다(갈 5:22).

브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하니라”
(καὶ, ἤρρεσεν ὁ λόγος ἐνώπιον παντὸς τοῦ πλήθους, καὶ ἐξελέξαντο Στέφανον, ἄνδρα πλήρης πίστεω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누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운 사실을 기록한 후, 그 이후의 교회 형편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6:7)

위의 내용은, 분명히 사도 교회가 믿음과 성령,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에게 공궐의 일을 맡긴 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했던 결과다. 사도 교회의 시행 원리에 따라, 교회가 성령 충만한 종들을 직분자로 세워, 교회의 본무에 전담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질적, 양적 성장은 분명할 것이다. 스테반 ‘집사’는, 그 후 사도적인 증거 활동을 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7장). 그의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마지막 남긴 증거의 말은 다음과 같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7:55)

지금까지(1-7장), 주로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사역 면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어서 다음은, 8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성령 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성령사역 (8:1-40)

행 6-7장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일곱사람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음과, 일곱 중 첫 사람인 스테반이 교회에서의 그의 공적인 본무 이상의 증거적 생활을 하다가 순교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한 중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 도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했을 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찢려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던 것이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능력있는 증거는, 반 그리스도 세력으로 하여금 더욱 큰 펄박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1) 빌립의 전도

7장은 스테반의 순교로 끝을 맺고, 이어 8장 첫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큰 꺾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꺾박이 나서...” (8:1이하)

“큰 꺾박”(διωγμὸς μέγας)의 결과 사도 외의 모든 무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시다. 행1:8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

‘증거’ → ‘꺾박’ → ‘흩어짐’ → ‘복음 확장’

스테반을 제외한 여섯 집사들도 이때 흩어졌다. 꺾박을 피해, 그 동안 가기를 꺼려 했던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도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⁸²⁾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빌립의 복음 활동에 큰 역사가 있었다. 더러운 귀신들이 꺾이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⁸³⁾ 9절 이하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다. 오래 동안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백성들은 그를 다 청종하여 “하나님의 능력”(ἡ δύναμις τοῦ θεοῦ-8:10)이라 부르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빌립이 전도했을 때, 그들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2) 베드로와 요한의 확인 방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공적으로 보냈다(οἱ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ἀπόστολοι...ἀπέστειλαν πρὸς αὐτοὺς Πέτρον καὶ Ἰωάννη-8:14).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공적인 파송을 받아, 그곳 복음 전파의 과정을 판단하기 위해⁸⁴⁾ 그 곳에 도착하여 행한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8:15-16)

(οἵτινες καταβάντες προσήύξαντο περὶ αὐτῶν ὅπως λάβωσιν πνεῦμα ἅγιον οὐ-

82) 일부 흩어진 무리가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려고 한것은, 그곳에는 꺾박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의 꺾박은 주로 스테반을 대항했던 무리로부터였다. 특히 스테반의 동료 그룹(6집사)을 꺾박의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Marshall, I. H., Acts, (1981), p.151).

83) 행8:4~8과 그 다음 9절 사이에 “그러나”(δέ)로 연결시켜, 전후의 내용간의 대조를 보여준다 (KJV-“But”).

84) Stonehouse, N. B., “Repentance, Baptism an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1949), p.10.

δέπω γὰρ ἦν ἐπ’ οὐδενὶ αὐτῶν ἐπιπετωκός, μόνον δὲ βαπτισμένοι ὑπῆρχον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이 본문의 내용을 전 후 문맥과 관련시켜 몇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1) 처음 사마리아에 전도한 것은 빌립 ‘집사’였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고 있다. 사마리아 피신중에서, 그가 특별히 사마리아 인들에게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한 그 사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보아진다. 전도의 결과도 훌륭했다. 사마리아 지역, 복음 확장의 첫 ‘놀라운 발걸음’ (“a remarkable step”)⁸⁵⁾이었다.
- (2)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οἱ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ἀπόστολοι) 이를 듣고 그곳 전도의 완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들 중, 두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을 곧 파송했다(ἀπέστειλαν).
- (3)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행한 것은, ‘사마리아 신자’를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 사도들의 판단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아 왔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취한 행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다 :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느니라” (8:17)

(τότε ἐπέτιθον τὰς χεῖρας ἐπ’ αὐτούς, καὶ ἐλάμβανον πνεῦμα ἅγιον)

8장의 전체 문맥을 보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신자들의 신앙이 어딘가 피상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인것으로 보인다.⁸⁶⁾ 다음의 사실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 (1) 사마리아 인들은 아마 한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⁸⁷⁾ 당시의 복음 내용은 ‘예수님의 세상 구주 되심’이었다(요4:39~42). 그러나 주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믿음은 거의 없는 상태일 것이다.
- (2) 그들은 오래 동안 마술사 시몬에게 사로 잡혀 왔다. 그들은 시몬 마술사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간주할 만큼 영적 판단력이 낮았다.
- (3) 그들은, 외부의 표적과 기사에 큰 매력을 느꼈다. 이적을 근거로 한 신앙으로

85) Marshall, I. H., op. cit., p.156

86) Bruce, F.F., The Acts of the Apostles(1977), p.179.

87) 행8:1, 5의 사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세겜(Marshall, op. cit., p.154)이라고 한다면, 요4:4의, 사마리아의 수가성과는 매우 가까운 곳이다.

보인다.⁸⁸⁾

(4) 시몬 마술사도 다른 사마리아인과 함께 빌립으로 부터 복음을 듣고는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실상 그는 '회개해야 할 악함'이 있었고, '악독이 가득했으며', '불의에 매여있음'이 사도들에 의해 밝혀졌다(8:19).

위의 사실들은, 빌립의 전도와 그 활동에 어떤 결함이나 불완전한 점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사마리아 지역 전도에는 적어도 몇몇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특수 지역⁸⁹⁾ 임을 보여 준다. 첫 단계로, 빌립의 발걸음이 서론적으로 필요했고, 그 다음 단계로, 공적인 사도들의 발걸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가르침이 요청된 특수 경우다. 먼저 빌립을 통해서, 넓은 의미로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개방을,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보여 준 것이고, 그 다음 두 사도를 통해서, 좁은 의미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받음'에 대한 것 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의 안수에 의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성령님은 오순절 때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신데, 그는 주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포함한 구원 완성의 전체를 구약에 의해 증거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이와같은(오순절 때의 경우와 흡사하게) '성령님의 임재'의 축복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고 있다. 사도들의 안수하는 행동(ἐπιτίθουν)과 성령받는 동작(ἐλάμβανον) 모두가 미완료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겠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주의 말씀"(τὸν λόγον τοῦ κυρίου-8:25)⁹⁰⁾을 설명하는 동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을 지적하실 때,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구분 시키셨다(행1:8). 역사,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간의 깊은 '반감'⁹¹⁾의 두터운 장벽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무너지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 (2) 사마리아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곳은 모두 두 단계를 거쳐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 먼저 '빌립', 그 다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 (3) 특수지역을 위한 사도적 표적과 놀라운 능력이 동반된 복음활동은, 그 곳을

88) Bruce, op. cit., p.179.

89) Kelso, J. L., "Samaritans"(1978), p.246.

90) 누가의 특별한 기록 습관에 따라, 8:14~24에서, 사도들의 사마리아 방문 내용을 기록한 후, 이어 그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서술을 8:25에서 하고 있다.

91) Kelso, J. L., op. cit., pp.245~246; Gundry, Survey, op. cit., p.225.

오염시킨 누추한 마술사 시몬의 정체를 들어내어, 거짓과 참된 것을 분명히 밝혔다.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가 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이어서 빌립을 통하여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대한 복음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사도들의 공적인 관여없이 다만 빌립의 단독 복음활동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8장은, 전체적으로 사마리아에 대한 공적인 복음 전파의 내용과 이방인 전도의 서론을 기록했다면, 9장은 이방인 설교의 시작으로서, 바울의 부름을 기록하고 있다.

5. 이방인을 향한 성령 사역: 10~11, 15장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이 복음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의 복음 진전 과정을 가까운 문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전파됨(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8:25),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침(빌립을 통하여, 8:26~40), 이방인 선교준비(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9:1~31),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킨 역사(베드로를 통하여, 9:32~43), 그 동안 베드로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8:25), 유대의 룻다, 옴바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왔다. 그런데 10장 여기에 와서는, 유대의 옴바로 부터 다시 사마리아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도들의 발걸음이 지역과 종족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옮겨지고 있고, 주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전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다. 여기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령 사역 부면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음(10~11장), 2) 예루살렘 공회(15장)

1) 고넬료와 그 가정이 복음을 받음(10~11장)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었는데 가이사랴에서 복무 중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집 종들까지도 그 주인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10:2, 22). 그런데 그가 제9시쯤 되어 환상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옴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특별 계시를 받게되었다(10:3~5). 같은 시간에, 베드로 역시 옴바 쪽에서 성령의 특별 지시를 받게 되었다(10:9~23). '이방인'에 대한 복음 개방을 암시하는 여러차례의 언급(1:8; 2:5~13)이후, 여기서 그 구체적인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방인 고넬료의 공적인 교회 가입 사건의 특수성은,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의 분량,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나타난 반복되는 기이한 환상,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성령님의 생생한 인도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있다.

성령의 주역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10 : 19- τού δὲ Πέτρου·· εἶπεν αὐτῷ τὸ πνεῦμα··)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이방인 고넬료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사자”(ἄγγελον τοῦ θεοῦ, 10 : 3), “천사”(ὁ ἄγγελος, 10 : 7), 혹은 “거룩한 천사”(ἁγέλου ἁγίου, 10 : 22)가 주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도 베드로에게는 “성령”(τὸ πνεῦμα, 10 : 19) 혹은 “하나님”(ὁ θεός, 10 : 28)께서 친히 말씀하시거나, 지시하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베드로가 본 바 기이한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이다(10 : 15, 28). 그러나 그 환상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베드로 편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형편이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10 : 19~20). 성령께서 저희를 보내었다고 한 것을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율바의 베드로를 움직이게 한 주역은 바로 성령님이였다. 성령님의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게했다. 또한 성령님의 말씀은, 며칠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명확한 지시요, 인도였다. 성령님의 그 인도의 궁극적 목적은, 고넬료 가정의 모든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였다(10 : 40~41). 고넬료가 그 동안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생활하면서, 선행이 매우 높고, 주위의 칭찬을 크게 받고 있었으나, 그에게 하나의 큰 약점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 계획에는 어두웠다. 예수를 통한 사죄의 은총에는 무지했다(10 : 39~43). 그러므로, 이방인을 교회에 정식으로 가입시키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때, 매우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즉,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공동 사역, 그리고 그 관계성과 관련된 표현들이다. 이와같은 강조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를 재현시킨 듯한 구체적인 묘사로 나타나고 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10 : 38)- ‘하나님’, ‘나사렛 예수’, ‘성령’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μεγαλυνόντων τὸν θεόν)을 들음이라(10 : 44)-

‘성령’, ‘하나님’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10 : 47~48)- ‘성령’,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용된 “성령”에 대한 언급의 내용들은,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까지의 사건 현장에서 나타난 것들이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게 된 이 큰 사건이 있는 후,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오해하는 할례자들(11 : 2)을 위해, 베드로는 동일 사건의 진상을 회상하면서, 반복 설명하는 중에 나타난 “성령”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성령이 내게 명하시(εἶπεν δὲ τὸ πνεῦμα μοι)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11 : 12)

“내가 말할 때에 성령이(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11 : 15~16)

행10~11장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 사역의 중요한 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령님은 어떤 모호한 ‘영향력’,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이 강조되어 있다.
- (2) 성령님은 단독으로, 혹은 독창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공동 관계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의 하시는 일들을 믿고 확신하게 해 주신다.
- (3)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하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우처럼, 방언을 말하는 특이한 역사도 동반했다.
- (4) 성령님의 증거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심판의 주되심이 그 중심이었다.
- (5) 성령님은 이미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의 신실성을 강조하신다.
- (6) 성령님께서서는 궁극적으로 그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사람에게 대한 영광을 저지하고(10 : 25~27), 하나님께로의 영광을 극대화 하신다(10 : 46 ; 11 : 18).

2) 예루살렘 공회(15:1~35)

예루살렘 공회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 때문에 소집된 것이다(행15:1~3: 갈1~2장).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들도 믿고 유대인들과 꼭 같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의 지상 명령에 대한 놀라운 성취였다. 그런데, 유대의 바리새파에서는 이를 문제 삼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에 규정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15:1).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제시했다(15:2).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주 의제로 다루면서 많은 변론을 했다(15:6).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이방인들이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계획 가운데서 행하신 것임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성경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라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5:8~9)

(καὶ ὁ καρδιογνώστης θεὸς ἐμαρτύρησεν αὐτοῖς δοὺ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καθὼς καὶ ἡμῖν...)

베드로는, 여기서 이방인의 교회 가입에 대한 기본 원리는 과거 자신을 통한 고벨로 가정의 경우로 이미 결정된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⁹²⁾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교회에 가입시키는 일을 허용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다(행10:44~45). 하나님 자신이 이방인 구원에 대한 증거자이다.⁹³⁾

이것은 마치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 자신들이 최초의 기독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과 같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져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결국 그들로 주 예수를 믿게하여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행15:9~11), 유대 주의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같은 내용에 의견을 함께하는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였고,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같은 내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 기록으로 여러 교회에 알리게 되었다.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바로 성령의 것임과 동시에 사도들의 것임(τῷ πνεύματι τῷ ἁγίῳ καὶ ἡμῖν-성령과 우리-15:28)을 강조했다.

92) Bruce, F. F. Acts(1977), p.306.
93) Poole, M., "The Acts of the Apostles"(1979), p.434.

III.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사역

본 장에서는 1. 베드로 전 후서의 수신자와 기록 목적, 2. '성령'에 대한 언급, 3. 양서신에 나타난 성령 사역을 각각 다루면서, 양서신을 통해 계시된 성령사역의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수신자와 기록 목적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 활동의 주역을 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는 편지를 써서⁹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는데(벧전1:1), 그 편지안에서, 그가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쓴 것임을 여러곳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중에 표현된 술어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⁹⁵⁾ 벧전1:1, 14, 18; 2:10, 12; 4:3 등의내용은, 소아시아 5개 도에 흩어진 신자들은 주로 이방인이며, 또한 유대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 당하기 바로 전, 주후 63년경에, 고난중의 신자들을 권하고 위로하기 위해 본서를 썼다.⁹⁶⁾ 베드로 사도의 첫 서신에서 강조한 것이 '고난'에 대한 '위로'라고 한다면, 둘째 서신인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세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와 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강조되어 있다.⁹⁷⁾ 베드로 전후서는 각기 다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성령이 증거하는 바의 사도적 교훈'과 '성령에 의해 전달된 지식으로 위로하며 혹은 경고하고 있다.⁹⁸⁾

2. '성령' (혹은 '영')에 대한 언급

베드로 서신에서의 성령님의 위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만큼 두드러져 나타나 있진 않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 및 그 역할은 구원 사역과 신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베드로 전서의 시작이, 바로 구원을

94) 베드로는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를 통하여 썼다(벧전5:12).
95) Gundry, R. H., Survey(1975), p.348~9; Thiessen, H.C.,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1979), p.280.
96) Stibbs, A. M.,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1981), pp.66~67; Harrison, E. F., Introduction(1968), p.384; Gundry, Survey(1975), p.348, 352; Van Unnik, W. C.는 여기의 고난은 공격인 핍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불신 이웃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Christianity according to I Peter", 1956, p.80)
97) Thiessen, H. C., op. cit., p.286.
98) Ibid., p.287; Stibbs, A. M., op. cit., p.67

삼위 하나님과 관련, 설명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첫 언급,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ἐν ἁγιασμῷ πνεύματος-1:2)를 포함하고 있다. 벵전 1:22에 대한 어떤 독법(reading)⁹⁹⁾에 의하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διὰ πνεύματος)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로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환난중의 신자들이 진리를 순종하는 생활도 ‘성령을 통하여’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 베드로 전서 1:11에 “그리스도의 영”(πνεῦμα Χριστοῦ), 1:12에 “성령”(πνεύματι ἁγίῳ), 3:8에 “영”(πνεύματι)으로, 4:14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τὸ τῆς δόξης καὶ τὸ τοῦ θεοῦ πνεῦμα)으로 각각 나타난다. 베드로 후서에는 1:21에 한번 “성령”(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령’에 대한 직접 언급이 양적으로는 강조되어 있지 않으나, 언급된 문맥(1:20~21)은, 베드로 후서의 ‘기록된 계시’(written revelation: πᾶσα προφητεία γραφῆς) 자체가 ‘성령에 의한 예언적인 것’임을 강조함으로¹⁰⁰⁾ 그 내용이 바로 성령 사역의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 후서에 자주 자타나는 ὑπόμνησις,¹⁰¹⁾ γνώσις 혹은 ἐπίγνωσις,¹⁰²⁾ παρουσία,¹⁰³⁾ δόξα¹⁰⁴⁾ 등은 성령 사역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서신에 나타나 있는 성령 사역을 다룸에 있어서는, 성령에 대한 직접 언급된 부분의 내용과 함께 간접 설명중에서도 분명하고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양 서신에 나타난 성령 사역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에서 고난중의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다(1:3~12). 구원은 그 뿌리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강조한다.¹⁰⁵⁾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영광이 서신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들이며, 성도의 이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은 고난의 생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4:12), 오히려 이를 위해 부르심을

99) K, P에는 “성령을 통하여”(διὰ πνεύματος)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 결국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가 될 수 있다. KJV에는 K, P에 따라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로 번역하고 있다: GNT; NTG

100) Gaussen, L의 *Divine Inspiration of the Bible*(1971), pp.59~79를 참조하다.

101) 벵후1:12~13, 15:3:1~2; 요14:26의 ὑπομνήσει와 비교해 보라.

102) 벵후1:2, 3, 5, 6, 8, 20; 2:20, 21; 3:3, 18; 요14:26, 요일2:20, 27의 διδάσκω와 비교해 보라.

103) 벵후1:16; 3:4, 12와 요16:13~15를 비교해 보라.

104) 벵후1:3, 17; 2:10; 3:18과 요16:4를 비교해 보라.

105) Morris, L.,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1976), pp.321~327.

입있음을 깨닫고(2:21),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임(1:6)을 설명하고 있다. 성도로하여금 구원의 모든 내용들과 심지어 고난의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4:14).¹⁰⁶⁾ 베드로는 자신이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벵전1:2, 19; 2:21, 24; 3:18; 4:1; 5:1), 부활(벵전1:3, 21), 영광(벵전1:11, 21; 2:12; 4:11, 14, 16; 5:1; 벵후3:18), 재림(벵전1:7, 13; 벵후3:8~18)을 삼위 하나님과 서로 관련시켜 설명하고, 이를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시키고 있다. 때로는 ‘성령’을 직접 사용하면서 혹은 ‘성령’의 직접 언급은 없으나 한 증인으로서(μαρτυς-벵전5:1), 성령 역사의 결과의 내용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적용시킨다.

1) 직접 표현된 성령 사역

(1) 벵전1:2 (거룩하게 하심)

“...에 흠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ἐν ἁγιασμῷ πνεύματος, εἰς ὑπακοήν...)

베드로는 그의 서신 바로 시작에서 성도의 택하심(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즉 삼위 하나님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음에 유의할 수 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위에서 구별된 상태임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성령은, 성도가 성화중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에 관여하신다.¹⁰⁷⁾ 그리하여, 성령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순종으로 이끄신다.¹⁰⁸⁾

(2) 벵전1:10~12 (증거자로서의 성령)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τὸ ἐν αὐτοῖς πνεῦμα Χριστοῦ)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πνεύματι ἁγίῳ ἀποσταλέντι ἀπ’ οὐρανοῦ)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것이요...”

106) Ibid., p.327.

107) Ibid., p.327; Stibbs, op cit., p.72

108) 각주 99)를 참조하라.

여기서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πνεῦμα Χριστοῦ)이 친히 그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했고(προμαρτυρόμενον), 신약의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εὐαγγελισμαμένων)도 성령으로 그들의 사역을 수행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베드로는 구약 예언의 목표와 강조점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면서도, ‘그리스도 영’에 미리 증거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약의 그와같은 증거는, 오순절에 하늘로 부터 보내신 성령으로,¹⁰⁹⁾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음이 보고된 바임을 말하고 있다. 성령을 τὸ πνεῦμα Χριστοῦ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 활동의 주된 관심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¹¹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걸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령을 통한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성취되었고,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은 특별하고도 새로운 차원에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영광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다.¹¹¹⁾

(3) 벧전3:18~19 (성령, 부활, 복음전파)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ζωοποιηθεὶς δὲ πνεύματι)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ἐν ᾧ καὶ τοῖς ἐν φυλακῇ πνεύμασιν πορευθεὶς ἐκήρυξεν).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공적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참여하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는데,¹¹²⁾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를 삼위 하나님의 연합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다.¹¹³⁾ 일찌기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매”(행10:38)라고 표현했던 바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눅4:1),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109) πνεύματι ἁγίῳ ἀποσταλέντι ἀπ’ οὐρανοῦ란 표현은 그리스도의 약속(눅24:49; 요14:26; 15:26; 16:7)에 대한 오순절의 성취(행2장)를 말해주고 있다. 참조: Schweizer, E., “πνεῦμα” (1968), p.447.

110) Stibbs, A. M., op. cit., p.83; Bengel, J. A., “First Peter”(1981), p.730.

111) Stibbs, Ibid.

112) 마3:16~17; 막1:9~11; 눅3:21~22.

113) 롬8:11의 내용은 벧전3:18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표현중의 “영”이 “성령님”이심을 말해준다.

돌아와 공적인 사역을 이루셨다(눅4:14).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히 제물로 하나님께 살림심을 받으셨음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성령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또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성령안에서(ἐν ᾧ) 구약시대의 노아를 통하여 심지어 그 당시의 불의한 자들의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⁴⁾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순종치 않으므로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것이고(3:20), 최후 심판때 까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것이다.¹¹⁵⁾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구약시대에도 의인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4) 벧전4:14 (고난의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옥을 받으면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ὅτι τὸ τῆς δόξης καὶ τοῦ θεοῦ πνεῦμα ἐφ’ ὑμᾶς ἀναπαύεται)

여기의 ἀναπαύεται 동사는 현재형이다. 참된 성도가 땅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때문에 옥을 받고있으나 사실은 복있는 자다. 그 이유는(ὅτι)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성령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옥을 받고 있는 그들을 장차 영광스럽게 해 주실것이다.¹¹⁶⁾

(5) 벧후1:21 (성령과 예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προφητεία …ἀλλὰ ὑπὸ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φερόμενοι ἐλάλησαν ἀπὸ θεοῦ ἄνθρωποι)

여기의 예언은 “예언의 말씀”(τὸν προφητικὸν λόγον: 벧후1:19), “성경의 예언(prophecy of Scripture)¹¹⁷⁾ “예언적 기록”¹¹⁸⁾을 말하며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여기 “성경의

114) 벧전1:11; 벧후2:5; Gaebelin, A.C., “The First Epistle of Peter”(1979), pp.76~79.

벧전3:18ff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것은, Clark, G. H의 *Peter Speaks Today*(1967), pp.122~135; Butler, Ch.의 “Thoughts on the Interpretation of I Peter 3:18ff.”; Procksch, O., *αγιος* (In: *TDNT*, vol.1, p.103)를 참조하라.

115) Bengel, J. A., op. cit., p.747.

116) 이사야11:2; 요14:16; Poole, M.,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1979), p.914.

117) NIV, NEB는, 벧후1:20의 πᾶσα προφητεία γραφῆς를 “prophecy of Scripture”로 번역하고 있다.

118) Poole, M., op. cit., p.921.

예언”은 가까운 전 후의 문맥으로 보아, 베드로 자신이 과거에 보고 들은 놀라운 이적적인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요(16~19절)¹¹⁹⁾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것(벧후2: 1~)과도 완전히 구분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¹²⁰⁾ 신약의 사도들은¹²¹⁾ 그들 자신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시키는데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했던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위해 선지자들을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의 말이나 글에 오류가 없도록하셨고, 장차 있을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게 하셨다.¹²²⁾

2) 간접 표현된 성령 역사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비교할 때, 성령 언급에 대한 빈도에 있어서는 베드로후서가 빈약하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에는 성령 활동의 결과에 대한 보다 분명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성령은 사도들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심 (벧후1: 12~18; 3: 1~2)

베드로는 주님으로 부터 고별의 말씀중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ὑπομνήσει-요14: 26)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교훈 즉 주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고 있다(벧후1: 12~18):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ἐν ὑπομνήσει)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시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μνησθῆναι τῶν προειρημένων ῥημάτων ὑπὸ τῶν ἁγίων προφητῶν καὶ τῆς τῶν ἀποστόλων ὑμῶν... 벧후3: 1~2)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

베드로는 주님으로 부터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요14: 26)고 들었는데, 베드로 후서에는 “읽”(ἐπίγνωσις-1: 2, 3, 8; 2: 20), “지식”(γινῶσις-1: 5, 6; 3: 18), “알다”(γινώσκω-벧후1: 20; 3: 3), “알다”(ἐπιγνώσκω-2: 21)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의 결과 이제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19) Ibid., p.920.

120) 삼상2: 27; 9: 6; 왕상17: 18; 벧전1: 11.

121) 벧전1: 12; 벧후3: 15~16.

122) Poole, M., op. cit., p.921.

그리고 주의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때로는 알고 있다가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성령의 가르침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ἐν ἐπιγνώσει τοῦ θεοῦ καὶ Ἰησοῦ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벧후1: 2)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διὰ τῆς ἐπιγνώσεως τοῦ καλέσαντος ἡμᾶς-벧후1: 3)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οὐκ ἄργους οὐδὲ ἀκάρπους καθίστησιν εἰς τὴν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ἐπίγνωσιν-벧후1: 8)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τούτο πρῶτον γινώσκοντες, ὅτι ἐλεύσονται ἐπ' ἐσχάτων τῶν ἡμερῶν ἐν ἐμπαιγμονῇ ἐμπαίκται... -벧후3: 3)

장차 있을 주의 강림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τὰ ἐρχόμενα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요16: 13)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의 두번째 서신1: 16; 3: 4, 12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언급하면서, 말세에 어떤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비웃고 기롱하게 될 것임을 알게하신다. 장차 되어질 염려스러운 일들을 말씀하면서 현재의 생활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주 하나님을 향한 영광

주님께서서는 “그가(성령)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ἐχέινος ἐμὲ δοξάσει-요16: 14)라고 하셨는데, 베드로 전 후서에는 주 하나님과 관련시켜 δόξα(영광)라는 단어를 10회¹²³⁾, δοξάζω(영광 돌리다)를 3회¹²⁴⁾ 사용하고 있다. 벧전1장1~2의 인사 바로 다음을 εὐλογητὸς ὁ θεὸς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로 시작하여, 벧후 3: 18의 마지막 부분을 αὐτῷ ἢ δόξα καὶ νῦν καὶ εἰς ἡμέραν αἰῶνος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로 끝을 맺고 있다. 베드로 서신의 전면에서 저자는 성령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 절대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영광의 주 하나님을 강조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서신이다.

123) 벧전1: 11, 21; 4: 11, 14; 5: 1, 10; 벧후1: 3, 17(2회); 3: 18

124) 벧전2: 12; 4: 11, 17

IV 성령사역 내용의 비교 : 행1~15장과 베드로 서신

본 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이미 살펴본 결과의 내용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사역이 행1:~15:과 베드로 서신에서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즉 오순절과 바로 그 직후의 기간(A.D. 30~40년대)과 보다 후대인 A.D. 60년대에 계시된 성령사역에 대한 비교다.

여기서는 1. 양쪽에 공통으로 나타난 성령사역, 2. 사도행전에서만 강조된 사역, 3. 서신서에서만 나타난 사역으로 각각 나누어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1. 양쪽에 공통으로 나타난 내용

1)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성령님

성령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영광 받으신 주님에 대한 증거자로서 사도들의 배후에서 직접, 간접으로 역사하셨다. 사도행전과 베드로서신 모두가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주님의 증거를 위해 택함을 받은 사도들은 사실 그 출발부터 ‘성령으로’(행1:2) 명함을 받았고, 오순절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증인(행1:8)이 될 것임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증인으로서의(행2:32; 3:15) 사도 베드로는, 그의 메시지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들에 맞추었다(행2:31~32, 36; 10:40~41). 베드로는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주를 증거할 때 그 결과도 놀랍게 나타났다.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무리들 위에 직접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행10:44)가 있으므로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라기도 했다. “성령과 사도들”은 이방인들의 교회 가입을 공적으로 인정했다(행15:28).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복음 활동과 관련된 문맥속에 ‘증거했다’, ‘증인’, ‘증거’라는 단어가 양적으로도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베드로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부터 벌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했음(προμαρτυρόμενον)을 밝히고 있다. 베드로 서신에는 ‘증거하다’는 단어 대신 κηρύσσω(전파하다)와 εὐαγγελίζω(복음을 전하다)를 강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증거하고 있다(벧전3:18~19).

성령님의 증거적 활동이 사도행전과 베드로서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찌기 “진리의 성령이 오실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ἐκεῖ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요15:26)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반대하게 될 상황에 대처하시기 위해서, 성령과 사도의 두적법한 증거(요15:26~

27; cf. 행15:28)를 나타내신다.

2)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구약의 말씀(시41:9; 69:25; 109:8; 행1:17~20)을 기억나게 하여, 가룟 유다의 결말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게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때, 그 놀라운 분위기속에서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즉시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언의 성취임을 확신하고는, 무리들에게 능력있게 가르칠 수가 있었다.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고, 성령이 기이하게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보고는, 조금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고백했다(“ἐμνήσθη δὲ τοῦ ῥήματος τοῦ κυρίου…”-행11:16)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도 ‘생각나게 하시는’ 표현들이 강조되어 있다(벧후1:12~18; 3:1~2). ‘사도들의 교훈’을 생각해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특히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리라’는 말씀(행1:11)을 회상시켜주는 ‘주의 강림’ 혹은 ‘주의 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현재의 성도의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임을 권고한다(벧후3:1~13).

주님께서 일찌기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기억나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ἐκεῖνος… ὑπομνήσει πάντα ἃ εἶπον ὑμῖν…-요14:26)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과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사역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들 중 그 하나는 διδάσκω 혹은 διδασχῆ이다(II-2참조). 특히 행4~5장에 ‘가르침’에 대한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후, 사도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에 따라 행한 내용의 기록 부분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그외의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을때(행4:2), 놀랄만한 권세(δύναμις-행4:7)가 나타나서, 그로 인해 핍박이 있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은 능력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두려워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지않도록 명하기까지 했으나(행4:18; 5:28), 성령의 가르치게 하는 역사는 이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행5:42).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중에서도 성령의 가르치심의 결과와 관련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음에 유의할 수 있다. ‘성령의 도움으로 현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고

있다'(벧후1:2~3)고 하고 있다.

4) '미래의 일'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과 베드로서신에는, 가장 '가까운 미래의 일'과 '먼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된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특별지시와 인도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공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특이하게 나타난 사실은, '가까운 미래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장하셨던 것이다(행10~11장) 고넬료 가정의 그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것이다(II-5-1)을 참조). 베드로 사도는 또한 '먼 미래의 일'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고는(행1:9~11), 후대에 그의 서신에서는 보다 자세히 '장차 나타날 일'을 기록하면서 현재의 생활을 강조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가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보도다”(벧후3:8~13)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τὰ ἐρχόμενα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요16:13)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사도행전에서 그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직접 체험을 했고, 후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특별한 조명하에서, 미래의 일들 중, 가장 분명하고 중심이 되는 내용¹²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5)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의 복음 전파의 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중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설명할 때, 강조되는 것은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근거로하여, 아들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영광 받으심을 성령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공동 계획 하에서 보내실 것을 밝히셨는데, 그 내용의 성취다. 삼위 하나님의 계획중에서 보냄을 받아 오신 성령님은, 역시 예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을 토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다. 성령님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참된 '진리의 도'(ἡ

125) '주의 날', '주의 강림'에 대한 미래의 일은, 사도 베드로의 독창적인, 혹은 그의 고유한 계시가 아니다. 모든 사도가 성령으로 하나같이 받은 같은 내용의 것이다(벧후3:15~16; 요한계시록 1~22장).

ὁδος τῆς ἀληθείας)를 말한다(벧후2:1~3).

6) 사역의 목적: 주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직접 인도를 받고 있는 베드로에 있어서, 그 사상과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행3:11~13). 베드로 자신 뿐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은 무리, 즉 그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로부터 기이한 역사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음으로 부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행2:47; 3:9; 4:21; 10:46; 11:18). 베드로는 그의 서신 중에서도 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표현하되, 반복되는 용어 사용을 통해서나, 서신서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나 이를 강조하고 있다(III-3을 참조).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은 다음의 내용으로 마치고 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찌어다”

2. 사도행전 에서만 강조된 사역내용

성령 사역의 내용이,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행전과 베드로 서신에 공통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으나, 사도행전에만 특이하게 나타난 것들도 없지 않다.

1) '방언을 말하는' 역사

행2장의 첫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 굉장한 광경이 나타나고 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장면과 바람같은 소리가 지배하고 있는 중에, 무리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모인 무리들에게도 나타났다고(행10:46). 이와 같은 현상은, 주의 복음이 능력있게 “땅 끝까지”(방언이 다른 지역들) 전해져야 한다는 주의 말씀과, 인종, 지역을 초월한 세계적인 복음의 성격, 그리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의 시작과 관련해서 나타난 특수한 일이다.¹²⁶⁾

2) 마음의 깊은 '거짓'과 '악함'을 아시는 성령

행5,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백성, 지역으로 힘있게 확장되고 있는 중에, 이를 음해하기 위해 사탄이 '거짓'과 '악함'으로 나타날 때, 사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126) II-3; II-4; 방언을 위시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사도시대 교회의 특징임을 잘 밝혀주고 있는 Counterfeit Miracles(Warfield, B. B., 1976, pp.1~31)을 참조하라.

이를 단번에 알고는 단호히 좌절시키고 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 내부의 청결과, 외부로는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과 권위를 과시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 무서운 심판차원의 일까지 행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현재 그를 지배하고 계심의 실례다(요16 : 11). 사도들의 복음 증거 내용과 행동은 거짓것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권위의 규범이 되었다.

3) 인격적인 성령 활동

성령님께서, 어떤 단순한 ‘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으로 사도행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II-5-1을 참조).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실 때, 성령 그가 인격적으로 땅위에서 활동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¹²⁷⁾ 바로 그 말씀의 성취다.

4) 병자와 죽은자를 일으키는 역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일으켰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행3 : 1~10 ; 9 : 31~43).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요14 : 13 ; 15 : 16 ; 16 : 23, 24)는 주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 사도시대 교회는, 표적과 기사, 기이한 역사들을 많이 동반했는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수성 및 그 의미와 관련시키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요14 : 18) 위로 하신다.

3. 서신서에만 나타난 내용

서신서에 독특하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 표현된 곳을 본문 그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²⁸⁾

1)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벧전1 : 2)

“...에 흠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

127) 예수님께서,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중성명사)을 지칭하실 때, ἐκεῖνος(남성 지시대명사)로 하신것(요14 : 26 ; 15 : 26 ; 16 : 13)과 사역의 내용, ‘가르치시고’(요14 : 26), ‘증거하실 것이요’(요 15 : 26), ‘책망하시리라’(16 : 8) 등은 모두 인격적인 분으로서 행할 내용들이다.

128) 자세한 내용은 III-3을 참조하라.

지하노니...”

2) 주님의 부활이 성령으로 됨 (벧전3 : 18)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3) 고난의 성도와 함께 하심 (벧전4 :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있는 자로다. ‘그 이유는’(οτι)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4) 하나님의 말씀(예언)과 성령 (벧후1 :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V. 결론

사도 시대의 초기 교회 전통과 교훈을 다른 어느 서신보다 가장 조화있게 그리고 자상하게 반영해 주고 있는 베드로서¹²⁹⁾와 행1~15장을 각각 분석, 서로 비교해 본 결과-특히 베드로 자신의 활동을 성령 사역과 관련시켜서-다음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

1.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로 부활의 주님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되, 특히 절대적이거나 이방적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반했으나, 베드로 서신에는 이적적인 역사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오히려 주를 위한 고난을 강조하고 있다.
2. 오순절 성령 강림(성령으로의 세계) 당시와 그 직후에 놀랍고도 기이한 역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특수 상황으로 인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순절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건중 그 하나로서, 영광 받으신 주님의 선포시대의 시작이요, 이방인과 그 지역을 향한 복음 개방시대의 출발이었다.
3. 성령 사역의 일관된 그리고 변함없는 중심되는 강조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129) Selwyn, E.G.,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1946), p.32.

바의 내용 그대로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며, 가르치고, 증거하여, 그를 영원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

4. 성령의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성경대로 믿고, 미래의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현재 고난 중에서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는 데서 나타난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을 기쁨으로 견디는 생활이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께서 원하실 때 기대밖의 기이한 역사를 그의 편에서 주시기도 하신다.

참 고 문 헌

- Barnett, A. E., 1957. "The Second Epistle of Peter : Introduction and Exegesis" (In : *The Interpreter's Bible*, vol. 12 : pp.163~206)
- Barrett, C. K., 1961. *Luke the Historian in Recent Study*. London : Worth
- Bengel, J. A., 1981. "First Peter" (In : *Bengel's New Testament Commentary*, Vol. 2 : pp.725~759. Grand Rapids : Kregel)
- Bengel, J. A., 1981. "Second Peter" (In : *Bengel's New Testament Commentary*, Vol. 2 : pp.760~781. Grand Rapids : Kregel)
- Boer, H. R., 1979. *Pentecost and Missions*. Grand Rapids : Eerdmans.
- Bo Reicke, 1959. "The Risen Lord and His Church" (In : *Interpretation*, Vol. 13, pp.157~169)
- Brown, R. E.(ed.), 1973. *Peter in the New Testament : A Collaborative Assessment by Protestant and Roman Catholic Scholars*. Augsburg : Paulist
- Bruce, F. F., 1973. "The Holy Spirit in the Acts of the Apostles" (In : *Interpretation*, Vol. 27 : pp.166~183)
- Bruce, F. F., 1977. *The Book of the Acts*(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 Bruner, F. D., 1982.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 Eerdmans
- Butler, Ch., 1974. "Thoughts on the Interpretation of I Peter 3 : 18ff." (In : *The Reformation Review*, Vol. 21(no.2) : pp.90~97)
- Cadoux, C. J., 1918(rep.1965). "The Chronological Divisions of Acts" (In :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Vol. 19 : pp.333~341)
- Calvin, J., 1973. *The Acts of the Apostles*(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ran. by Fraser, J. W. & McDonald, W. J. G., Vol. 1). Grand Rapids : Eerdmans
- Cavallin, H. C. C., 1979. "The False Teachers of 2Peter as Pseudo-Prophets" (In : *Novum Testamentum*, Vol. 21 : pp.263~270).
- Chantry, W. J., 1979. *Signs of the Apostles : Observations on Pentecostalism Old and New*. 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Trust
- Clark, G. H., 1967. *Peter Speaks Today*.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 Chrhan, J. H., 1964. "The Purpose of Luke in Acts" (In : *Studia Evangelica*, Vol. 2, pp.354~368)
- Combrink, H. J. B., 1975. "The Structure of I Peter" (In : *Neotestamentica*, Vol.9 : pp.34~63)
- De Villiers, J. L., 1983. "The Theology of Acts" (In : *Guide to the New Testament*, Vol. 4, tran. by Briggs, D.R., N.G.Kerkboekhandel : Pretoria, pp.210~256)
- Dunn, J. D. G., 1978. πνεῦμα (In :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3 : pp.693~707)
- Dunn, J. D. G., 1978. *Jesus and Spirit* (London : SCM)
- Ehrhardt, A., 1958. "The Construction and Purpose of the Acts of the Apostles" (In : *Studia Theologica*, vol. 12, pp.45~79)
- Ellis, E. E., 1961. *Paul and His Recent Interpreters*. Grand Rapids : Eerdmans
- Gaebelein, A. C., n.d.,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 Our Hope
- Gaebelein, A. C., 1979. "The Acts of the Apostles" (In : *The Annotated Bible*, vol.3, pp.249~318. Neptune : Loizeaux Brothers)
- Gaebelein, A. C. 1979. "The First Epistle of Peter" (In : *The Annotated Bible*, vol. 4, pp.47~88)
- Gaebelein, A. C., 1979. "The Second Epistle of Peter" (In : *The Annotated Bible*, vol.4, pp.89~121)
- Gaffin, R. B. Jr., 1980. *Perspectives on Pentecost*.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 Gausson, L., 1971. *Divine Inspiration of the Bible* (tran. by Scott, D. D. from the French of 1841). Grand Rapids : Kregel.
- Gloga, P. J., 1979. *Acts of the Apostl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vol.1, Reprint of 1870). Minneapolis : Klock & Klock.
- Gundry, R. H., 1975. *A Survey of the New Testament*. Exeter : Paternoster
- Guthrie, D., 1978. *New Testament Introduction*. Leicester : Inter-Varsity.
- Guthrie, D., 1981. *New Testament Theology*. Leicester : Inter-Varsity.
- Harrison, E. F., 1968.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 Hoekema, A. A., 1975. *Holy Spirit Baptism*. Exeter : The Paternoster.
- Kelso, J. L., 1978. "Samaritans" (In :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ed. by Tenney M. C., vol.5, pp.245~247).

- Marshall, I.H., 1981.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 Eerdmans.
- Meyer, H. A., 1979. *The Acts of the Apostles : Critical and Exegetical Hand Book* (Meyer'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vol.4). Winona : Alpha.
- Morris, L., 1976.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 Exeter : Paternoster.
- Mounce, R. H., 1960. *The Essential Nature of New Testament Preaching*. Grand Rapids : Eerdmans.
- Poole, M., 1979(rep.) "The Acts of the Apostles" (In : *A Commentary on the Bible*, vol.3, pp.384~477, 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Trust)
- Poole, M., 1979(rep.)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 (In : *A Commentary on the Bible*, vol.3, pp.898~917).
- Procksch, O., 1968. ἄγιος (In :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by Kittel, G., tran. by Bromiley, G. W., vol. pp.100~112)
- Rackham, R. B., 1965(rep.) "The Acts of the Apostles" (In :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vol.1, pp.76~87).
- Schweizer, E., 1968. πνεῦμα (In :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6, pp.396~455).
- Selwyn, E. G., 1946. *The First Epistle of Peter*. London : Macmillan.
- Stibbs, A. M., 1981.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 (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 Eerdmans.
- Stonehouse, N. B., 1949. "Repentance, Baptism an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n :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12~13, pp.1~18).
- Stott, J. R. W., 1979. *Baptism and Fullness :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day*. Leicester : Inter-Varsity.
- Tenney, M. C., 1976. *New Testament Survey*. Grand Rapids : Eerdmans.
- Thiessen, H. C., 1979.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 Trites, A. A., 1977. *The New Testament Concept of Witness* (Monograph Series 31 of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 Trites, A. A., 1978. "Witness" (In :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3, ed. by Brown, c., pp.1047~1050, Exeter : Paternoster).
- Vander Waal, C., 1978. *Search the Scripture* (vol.8) Ontario : Paideia.

Van Unnik, W. C., 1956. "Christianity according to I Peter" (In : *Expository Times*, Vol. 68, pp.79~83).

Van Unnik, W. C., 1960. "THE 'Book of Acts' The Confirmation of the Gospel" (In : *Novum Testamentum*, vol.4, pp.26~59)

Van Unnik, W. C., 1980.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In : *Sparsa Collecta* : The Collected Essays of W. C. VanUnnik, Part two : pp.323~332)

Warfield, B. B., 1976. *Counterfeit Miracles*. 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Trust.

Zerwick, M., & Grosvenor, M., 1981.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ome : Biblical Institute.

간 하 배, 1976. 新約學序說 : 복음비평사 및 사도 비평사. 서울 : 종신대학.

고 재 수, 1989. 성령으로의 세례와 신자의 체험.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박 형 용, 1981. 註解 使徒行傳 : 교회확장의 원리. 서울 : 성광문화사.

오 병 세, 1986. 신약개설 (교사양성총서 I). 부산 : 총회교육위원회(고신).

이 승 미, 1987. "성령으로의 세례" -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 (In : 고신대학 논문집, 제15집, pp.223~241)

- * GNT : The Greek New Testament (Aland-Black)
- NEB : New English Bible
- NIV : New International Version
- NTG : Novum Testamentum Graece (Nestle-Aland)
- KJV : King James Version
- TDNT :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

A Christian Ethical Interpretation of the Question about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이 보 민*

서 언

1. Bentham의 공리주의
2. Marshall에서 Durkheim에 이르는 변천
3. Parsons의 구조기능주의
4. Mead의 행동주의
5. 양심작용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사회」
6. 개인들이 「사회」에 입히는 영향
7. 결론

Foot notes

Bibliography

* 부교수, 기독교 윤리학전공.